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는 입력 훈련

고1 · 독서 28지문 · 2주 · 하루 두 지문

읽는다

천천히, 문단마다 멈춰서

덮는다

다시 펴 보지 않고

꺼낸다

말하고 · 쓰고 · OX로 확인

국어는 제시문을 읽을 때 90%를 입력해서, 다시 제시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제일 잘 하는 사람이다.

— 이지영 선생님 (이지영 Official 「국어 잘 보는 법」)

HOW TO USE

이 책은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비문학이 무너지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찾으려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에서 해당 부분을 찾고, 다음 문제에서 또 찾습니다. 지문 하나를 네다섯 번 읽지만 글 전체는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잘하는 학생은 처음 한 번 읽을 때 글의 뼈대를 머리에 넣고, 지문은 **확인할 때만** 봅니다. 차이는 머리가 아니라 읽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입력은 읽는 동안이 아니라 **덮고 꺼내 볼 때** 비로소 확인됩니다. 이 책은 그 꺼내기를 매일 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1 하루 40분, 이 순서로

지문 하나 = 20분

STEP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이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8~10분

STEP 2

덮고 말하기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설명. 막힌 곳이 곧 입력 안 된 곳.

3분

STEP 3

뼈대 쓰기

문단 순서대로 핵심을 한 줄씩 백지에.

3분

STEP 4

덮은 채 OX

지문을 펴지 않고 5문항. 기억으로만 판단.

2분

STEP 5

펴서 대조

빠뜨린 문단·틀린 OX에 표시. 답지로 확인.

3분

2 같은 지문을 세 번 만난다

새 지문보다 「끝까지 꺼내 본 경험」이 먼저

DAY n

1~5단계 전부



3일 뒤

2~4단계만 · 덮은 채로



7일 뒤

3분 안에 뼈대가 다 나오면 통과

3 스스로 점검하는 기준

「뼈대」 칸 기준

꺼낸 문단	상태	다음 행동
전체의 80% 이상	입력 완료	다음 지문으로. 3일 뒤 복습만 지킨다.
50~80%	부분 입력	막힌 문단의 첫 문장과 연결어 (그러나·한편·따라서)를 다시 읽고 그 문단만 덮고 말하기.
50% 미만	읽기 속도 과다	다음 지문은 STEP 1 을 12분으로 늘린다. 문단마다 반드시 멈춘다.

읽는 동안에는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덮고 꺼내 봐야 몇 %가 들어갔는지 보입니다. 처음에는 절반도 못 꺼냅니다. 정상입니다.

— 공부코치

STUDY LOG

2주 학습 기록표

매일 두 지문을 마치면 한 줄씩 채웁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2주를 버티게 합니다.

DAY	지문 1	지문 2	날짜 · 시간	빠대	OX	3일 뒤	7일 뒤
01	인문·예술	과학		/ 15	/ 10	☐	☐
02	예술	과학·기술		/ 14	/ 10	☐	☐
03	사회·법	기술		/ 12	/ 10	☐	☐
04	사회·법	기술·공학		/ 12	/ 10	☐	☐
05	인문·심리	과학·생명		/ 12	/ 10	☐	☐
06	인문·윤리	과학·지구		/ 15	/ 10	☐	☐
07	사회·법	과학·생명		/ 13	/ 10	☐	☐
08	사회·정치	기술		/ 13	/ 10	☐	☐
09	사회·법	과학·생명		/ 12	/ 10	☐	☐
10	인문·미학	과학·생명		/ 12	/ 10	☐	☐
11	사회·경제	과학·생명		/ 11	/ 10	☐	☐
12	인문·철학	예술		/ 10	/ 10	☐	☐
13	사회·정치	인문·철학		/ 12	/ 10	☐	☐
14	사회·경제	인문·철학		/ 12	/ 10	☐	☐

DAY 01

지문 1 / 2

인문·예술

2024년 3월 고1 학력평가 21~24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은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하였다. 절대적이라고 믿어 왔던 시간 간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기존에 당연시 되어 온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 이는 서양의 회화에도 영향을 미쳐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대상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세부적 묘사를 배제하고 구와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하여 질감과 부피감을 부각하였다. 색채 또한 본질 구현에 있어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몇 가지 색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큐비즘은 하나의 시점으로는 대상의 한쪽 형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대상의 전체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다중 시점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한 화면에 그려 내고자 한 기법이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을 그릴 때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함으로써 대상의 전체 형태를 관람자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 하였으며,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였다.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 주려는 시도는 다중 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는데, 이 시기의 큐비즘을 분석

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해체하여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어 표현했고, 색채 또한 대상의 고유색이 아닌 무채색으로 한정하였다. 해체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대상은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되었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만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큐비즘은 화면 안으로 실제 대상 혹은 대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화면 밖의 재료들을 끌어들었다. 이것을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 종합적 큐비즘의 특징을 보여 주는 대표적 기법으로는 ‘파피에 콜레’가 있다. 이는 화면에 신문이나 벽지 등의 실제 종이를 오려 붙여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나무 탁자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에 나뭇결무늬의 종이를 직접 붙였다. 화면에 붙인 종이의 색으로 인해 색채도 다시 살아났다.

큐비즘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대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큐비즘이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은 회화 예술에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표현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DAY 01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이 글은 6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큐비즘은 색채를 본질 구현에 부차적인 것으로 보아 몇 가지 색으로 제한하였다.	O	X
2	큐비즘은 대상의 전체 형태를 보여 주기 위해 하나의 시점으로 그리는 원근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O	X
3	분석적 큐비즘에서는 대상이 지나치게 해체되어 관람자가 제목이나 문자로만 대상을 추측할 수 있었다.	O	X
4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의 고유색을 살려 부피감을 더욱 강조하였다.	O	X
5	종합적 큐비즘은 화면에 실제 종이를 붙이면서 색채가 다시 살아났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6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1

지문 2 / 2

과학

2024년 3월 고1 학력평가 39~4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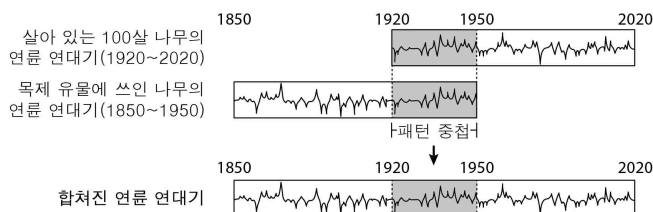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해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나이테는 현재 남아 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크게 심재, 변재로 구분된다. 심재는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으로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다. 변재는 심재의 끝부터 꺾질인 수피 전까지의 바깥 부분으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이다. 나무의 나이는 이 심재와 변재의 나이테 수를 합한 것이 된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성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 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면 성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 고사할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성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성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다.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성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지게 된다.

나이테를 활용하여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 연대 측정이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 연대기가 있어야 한다.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 연대기 작성은 가능하다.



살아 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여 이미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비교하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지금 살아 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성장하던 기간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다.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재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 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재가 없는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게 된다.

변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든 다음,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야 하는데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 유물의 나이테가 변재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다. 하지만 변재의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 나갔다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 나간 변재 나이테 수를 더한 값이 벌채 연도가 되는데 이때는 수령별 평균 변재 나이테 수를 참고한다.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재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 있는 변재 나이테 수를 빼,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 낸 변재 나이테 수를 구한다. 그리고 이를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더해 벌채 연도를 확정한다. 그 다음, 벌채한 후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일반적인 기간인 1~2년을 더해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추정한다.

* 벌채: 나무를 베어 냄.

DAY 01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8

9

이 글은 9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심재는 생장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 밝은 색을 띠는 바깥 부분이다.	O	X
2	나이테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 환경 요소 중 가장 부족한 요소이다.	O	X
3	같은 수종이라면 자라는 지역이 달라도 나이테 너비 변화 패턴은 유사하다.	O	X
4	유물의 나이테에 변재가 전혀 없으면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다.	O	X
5	변재가 완전하게 남은 유물이라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곧 제작 연도이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9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1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큐비즘의 표현 방식

2024년 3월 고1 학력평가 21~24번

큐비즘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려고 다중 시점·분석적·종합적 단계를 거치며 현대 추상 회화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

기존 인식 의문 → 근원적 형태 → 다중 시점 → 분석적 큐비즘 → 종합적 큐비즘 → 추상 회화

- ① 20세기 초 과학 발전이 기존 인식을 흔들며 큐비즘이 탄생함
- ②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 대신 기하학적 단순화로 근원적 형태를 추구함
- ③ 원근법을 거부하고 다중 시점으로 대상의 전체 형태를 표현함
- ④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을 격자로 해체해 알아볼 수 없게 됨
- ⑤ 종합적 큐비즘은 파피에 콜레로 실제 재료를 붙여 이 문제를 해결함
- ⑥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큐비즘은 현대 추상 회화 탄생에 영향을 줌

- 1 O 큐비즘은 색채를 본질 구현에 부차적인 것으로 보아 몇 가지 색으로 제한하였다.
→ 2문단: 색채 또한 본질 구현에 있어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몇 가지 색으로 제한
- 2 X 큐비즘은 대상의 전체 형태를 보여 주기 위해 하나의 시점으로 그리는 원근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 3문단: 하나의 시점에서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하고 다중 시점을 적용
- 3 O 분석적 큐비즘에서는 대상이 지나치게 해체되어 관람자가 제목이나 문자로만 대상을 추측할 수 있었다.
→ 4문단: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만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
- 4 X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의 고유색을 살려 부피감을 더욱 강조하였다.
→ 4문단: 고유색이 아닌 무채색으로 한정,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분해
- 5 O 종합적 큐비즘은 화면에 실제 종이를 붙이면서 색채가 다시 살아났다.
→ 5문단: 화면에 붙인 종이의 색으로 인해 색채도 다시 살아났다

지문 2 나이트 연대 측정

2024년 3월 고1 학력평가 39~43번

나이트 너비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따라 변하며, 이 패턴으로 만든 표준 연대기와 유물 연대기를 비교해 목제 유물의 제작 연도를 추정한다.

심재·변재 → 제한 요소 법칙 → 연륜 연대기 → 표준 연대기 → 벌채 연도 → 제작 연도

- ① 나이트는 나무 나이뿐 아니라 목제 유물의 제작 연도 규명에도 쓰임
- ② 나이트는 어두운 안쪽 심재와 밝은 바깥쪽 변재로 구분됨
- ③ 나이트 너비는 가장 부족한 요소가 결정한다(제한 요소의 법칙)
- ④ 같은 수종·유사 환경이면 너비 변화 패턴이 비슷하고 지역이 다르면 달라짐
- ⑤ 연륜 연대 측정에는 너비 변화 패턴을 그린 연륜 연대기가 필요함
- ⑥ 살아 있는 나무부터 패턴 비교를 반복해 장기간의 표준 연대기를 만들
- ⑦ 측정 1단계: 유물 나이트에 변재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함
- ⑧ 2단계: 유물 연대기를 만들고 t값·G값을 고려해 표준 연대기를 정함
- ⑨ 3단계: 절대 연도 부여→잘린 변재 보정→건조 기간 더해 제작 연도 추정

- 1 X 심재는 생장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 밝은 색을 띠는 바깥 부분이다.
→ 2문단: 그것은 변재. 심재는 생장이 멈추고 진액이 갇혀 어두운 안쪽 부분
- 2 O 나이트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 환경 요소 중 가장 부족한 요소이다.
→ 3문단: 가장 부족한 요소가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 = 제한 요소의 법칙
- 3 X 같은 수종이라면 자라는 지역이 달라도 나이트 너비 변화 패턴은 유사하다.
→ 4문단: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패턴은 달라진다
- 4 O 유물의 나이트에 변재가 전혀 없으면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다.
→ 7문단: 변재가 없는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게 된다
- 5 X 변재가 완전하게 남은 유물이라면 마지막 나이트의 절대 연도가 곧 제작 연도이다.
→ 9문단: 마지막 나이트 연도는 벌채 연도이고, 건조 기간 1~2년을 더해 제작 연도를 추정

DAY 02

지문 1 / 2

예술

2024년 6월 고1 학력평가 16~20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흔히 예술이라고 하면 고상한 소재를 활용하여 아름다움이나 만족감을 주는 특별한 작품이나 행위를 떠올린다. 하지만 현대 예술에서는 고상함을 찾기 힘든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고 추함이나 불쾌감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아방가르드이다. 아방가르드는 주력 부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병사를 일컫는 말에서 유래한 예술 용어로, 예술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예술 운동이다.

아방가르드의 탄생은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관련이 있다. 근대 이전까지의 예술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집단의 종교적 목적이나, 왕이나 귀족 개인의 세속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속적인 수단이었다. 예술가 또한 종교나 궁정에 소속된 일개 기술자에 불과하다고 인식되었다. 반면 근대의 예술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나 만족감 등 고유한 미적 체험을 줄 수 있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예술가도 특별한 재능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하지만 권위 있는 비평가들에게 작품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기 위해, 예술가들은 예술적 전통과 관습이라는 당대의 미학적 기준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대의 미학적 기준은 예술을 고유의 영역으로 독립시켰지만, 오히려 전통과 관습에 종속되게 한 채 새로움을 잃게 만들었다. 아방가르드는 이러한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고, 새로운 예술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예술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아방가르드의 관점에서 예술가는 전통이나 관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새로운 미래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예술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추하고 난해한 그림을 그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된 시를 낭송하는 등 의도적으로 당대의 미학적 기준에 저항하였다. 또한 번기, 자전거 바퀴 등 일상적인 소재들을 창작에 활용하거나, 예술 활동이 특별하고 독창적인 일이라는 통념을 깨기 위해 일상적 활동을 활용하여 예술과 일상의 구분을 무너뜨렸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이나 매체를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에 적용하였으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예술을 완성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거나 작품을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를 파괴하였다.

예술계는 아방가르드가 제시한 예술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후 새로운 경향으로 인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사조와 작품들이 주류 예술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역설적이게도 아방가르드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어 아방가르드 운동은 쇠퇴하였다. 하지만 새로움과 저항이라는

가치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한다는 아방가르드의 본질은 후대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

기술 발달과 아방가르드 예술의 영향으로 등장한 **미디어 아트**는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를 활용해 상영하는 방식에 기반한 미술의 한 갈래이다.

비디오 아트는 미술이 대중문화에 위축되어 그 역할과 위상이 흔들리자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텔레비전의 보급은 대중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상은 국가나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편성된 것이었다. 그 내용은 국가의 이념이나 상업적 가치, 흥미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대중들은 이러한 일방적인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의 보급은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이는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던 대중을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소통하는 주체로 변화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와 새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 기존 예술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 시공간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창작자와 관람객의 상호 소통을 지향한다.

비디오 아트의 유형은 형태를 기준으로 비디오 영상과 설치 비디오로 나뉜다. 비디오 영상은 맥락 없는 이미지, 빈 화면 등의 실험적 이미지나 비판적 내용을 담아 만든 영상 자체를 의미한다. 설치 비디오는 영상을 텔레비전 등 다양한 사물이나 장치와 결합하여 제작한 설치물이다. 설치 비디오에는 예술가가 텔레비전의 일방 소통적 특성을 비판하기 위해 기계 장치로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변형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또 예술가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작품이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변화하도록 만든 것도 있다.

이처럼 비디오 아트는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과, 작품이 이미 완결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우연한 사건의 개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관람객의 역할을 단순한 감상자에서 예술 작품 완성의 주체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예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DAY 02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8

이 글은 8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근대 이전의 예술은 종교적·세속적 목적을 위한 종속적인 수단이었다.	O	X
2	근대의 미학적 기준은 예술을 독립시키는 동시에 새로움을 더욱 촉진하였다.	O	X
3	아방가르드는 예술계에 주류로 인정받은 뒤 역설적으로 쇠퇴하였다.	O	X
4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의 대중문화가 확산되자 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O	X
5	설치 비디오 중에는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변하는 작품도 있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8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2

지문 2 / 2

과학·기술

2024년 6월 고1 학력평가 21~25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최근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대부분은 해수이며 염분이 없는 물인 담수는 전체의 약 2.5%이다. 담수 중에서도 빙하, 지하수 등을 제외하면 인간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의 총량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연구되어 왔다.

1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로는 다단 증발법이 있다. 이는 물의 상변화*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가열된 해수를 수증기로 변화시켜 응축함으로써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다단 증발법을 적용한 해수 담수화 설비는 해수 가열기, 진공 유지 장치, 직렬로 연결된 여러 개의 증발기 등으로 구성된다. 해수는 증발기 내부의 냉각관을 통과하여 해수 가열기 내부로 이동한다. 해수 가열기는 고온의 증기로 해수의 온도를 해수의 끓는점인 110℃ 이상까지 높이는 역할을 하며, 가열된 해수는 앞서 통과한 증발기들의 하부를 역순으로 통과한다. 이때 증발기들의 내부는 진공 유지 장치에 의해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 해수의 끓는점은 대기압이 낮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증발기로 진입한 해수는 순간적으로 끓어올라 수증기로 바뀌게 된다. 생성된 수증기에 포함된 미량의 해수는 필터를 통과하며 제거되어 순수한 수증기가 되고 설비 밖으로 빠져나간다. 순수한 수증기는 증발기 상부의 냉각관과 만나서 응축되어 담수가 된다. 해수는 증발기들을 거칠수록 염분 농도는 높아지고 온도는 계속 낮아진다. 하지만 증발기들의 내부 압력 또한 설비 끝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기 때문에 마지막 증발기까지 담수가 계속 생성된다. 다단 증발법은 해수를 끓여 수증기만 얻는 방식이므로 해수의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

지 않으며 담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다는 단점이 있다.

2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인 역삼투법은 다단 증발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기술로, 반투막을 이용하여 해수에서 담수를 얻는 방법이다. 같은 양의 담수와 해수 사이에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는 반투막을 설치하면 염도가 낮은 담수에서 염도가 높은 해수 방향으로 물 분자가 옮겨 가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며, 이때 담수에 작용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압력 펌프를 사용하여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을 해수에 가하면 오히려 반대로 해수에 있는 물 분자가 반투막을 거쳐 담수 방향으로 이동하며 담수가 생성되는데, 이를 역삼투법이라고 한다. 역삼투법은 반투막의 오염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담수 생성 효율이 저하되므로 반투막과 맞닿는 해수의 수질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해수에 섞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삼투법은 다단 증발법에 비해 담수 생성 효율은 높고 에너지 소비량은 적지만, 삼투압보다 높은 압력을 얻기 위해 여전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다는 문제가 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에너지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위한 해수 담수화 설비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도 많은 연구 비용을 투자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차세대 해수 담수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상변화: 물질이 온도와 압력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로 변하는 현상

DAY 02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이 글은 6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증발기 내부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유지되어 해수가 순간적으로 끓어오른다.	O	X
2	다단 증발법에서 해수는 증발기를 거칠수록 염분 농도가 낮아진다.	O	X
3	삼투 현상에서 물 분자는 염도가 높은 해수에서 염도가 낮은 담수 쪽으로 이동한다.	O	X
4	역삼투법은 반투막이 오염되면 효율이 떨어지므로 해수의 이물질들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O	X
5	다단 증발법은 해수의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6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2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아방가르드와 비디오아트

2024년 6월 고1 학력평가 16~20번

(가)는 기존 미학적 기준에 저항한 아방가르드의 탄생과 특징을, (나)는 그 영향으로 등장한 비디오 아트의 배경·유형·의의를 설명한다.

통념 저항 → 아방가르드 → 경계 파괴 → 비디오 아트 → 관람객 주체

- (가)① 아방가르드는 예술 통념에 저항하고 새 모습을 제시한 예술 운동임
 (가)② 근대 예술은 독립했으나 전통·관습에 종속되어 아방가르드가 탄생함
 (가)③ 일상 소재·새 매체·관객 참여로 예술과 일상,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를 깬
 (가)④ 주류에 편입되며 본질을 잃고 쇠퇴했으나 후대에 큰 영향을 줌
 (나)① 비디오 아트는 영상을 대중 매체로 상영하는 방식의 미술 갈래임
 (나)② 일방적 텔레비전에 맞서 대중문화 저항과 상호 소통을 지향함
 (나)③ 형태에 따라 비디오 영상과 설치 비디오로 나뉨
 (나)④ 관람객을 감상자에서 작품 완성의 주체로 바꾼 의의가 있음

- 1 O 근대 이전의 예술은 종교적·세속적 목적을 위한 종속적인 수단이었다.
 → (가)2문단: 근대 이전까지의 예술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종속적인 수단
- 2 X 근대의 미학적 기준은 예술을 독립시키는 동시에 새로움을 더욱 촉진하였다.
 → (가)2문단: 예술을 독립시켰지만 전통과 관습에 종속되게 한 채 새로움을 잃게 만들었다
- 3 O 아방가르드는 예술계에 주류로 인정받은 뒤 역설적으로 쇠퇴하였다.
 → (가)4문단: 주류 예술로 편입된 변화가 역설적이게도 본질을 상실하게 만들어 쇠퇴
- 4 X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의 대중문화가 확산되자 이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나)2문단: 미술이 대중문화에 위축되자 대안으로 제시, 대중문화에 대한 저항을 지향
- 5 O 설치 비디오 중에는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변하는 작품도 있다.
 → (나)3문단: 작품이 관람객의 행동이나 주위의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변화도록 만든 것

지문 2 해수 담수화 기술

2024년 6월 고1 학력평가 21~25번

해수 담수화 기술은 상변화를 이용한 다단 증발법에서 반투막을 이용한 역삼투법으로, 다시 에너지 소모가 적은 차세대 기술로 발전해 왔다.

물 부족 → 다단 증발법 → 역삼투법 → 에너지 절감 → 차세대 기술

- ① 물 부족으로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기술이 연구되어 옴
 ② 다단 증발법: 저압 증발기에서 해수를 끓여 수증기를 응축해 담수를 얻음
 ③ 다단 증발법은 수질 영향이 적고 대량 생산되나 에너지 소비가 매우 많음
 ④ 역삼투법: 삼투압보다 큰 압력을 해수에 가해 반투막으로 담수를 얻음
 ⑤ 역삼투법은 효율이 높지만 전처리가 필수이고 여전히 에너지를 많이 씀
 ⑥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차세대 담수화 기술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임
- 1 O 증발기 내부는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유지되어 해수가 순간적으로 끓어오른다.
 → 2문단: 대기압이 낮을수록 끓는점이 낮아져 증발기로 진입한 해수는 순간적으로 끓음
- 2 X 다단 증발법에서 해수는 증발기를 거칠수록 염분 농도가 낮아진다.
 → 2문단: 증발기들을 거칠수록 염분 농도는 높아지고 온도는 낮아진다
- 3 X 삼투 현상에서 물 분자는 염도가 높은 해수에서 염도가 낮은 담수 쪽으로 이동한다.
 → 3문단: 삼투 현상은 담수에서 해수 방향으로 이동, 반대 방향은 역삼투
- 4 O 역삼투법은 반투막이 오염되면 효율이 떨어지므로 해수의 이물질질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 3문단: 반투막 오염 시 효율 저하 →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
- 5 O 다단 증발법은 해수의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2문단: 해수를 끓여 수증기만 얻는 방식이므로 수질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

DAY 03

지문 1 / 2

사회·법

2024년 6월 고1 학력평가 26~30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법의 효력이란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이 타당성과 실효성을 바탕으로 그 목적과 내용대로 실현되는 힘을 의미한다. 이때 타당성이란 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국민과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서로 같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제정된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이란 법이 현실로 지켜져 실현되게 하는 강제력을 의미한다. 실효성이 없는 법은 법을 이행하도록 하는 실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법은 이러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을 발휘하며, 효력을 갖춘 법이 미치는 범위는 시간, 사람,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의 시간적 효력은 법의 부칙에 별도로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만약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면 법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규정된 폐지일이 지나거나, 폐지일 이전에 법 자체가 폐지되면 법의 효력은 소멸한다. 폐지일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신법이 시행되었을 때 구법의 효력이 소멸된다. 법의 효력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며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이미 신법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법이 시행될 때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구법의 시간적 효력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의 인적 효력은 한 사람에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냐에 관한 문제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중 어떤 원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진다.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관계 없이 국적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지은 경우 속인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상황에서 속인주의를 적용한다면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속지주의로 보완할 수 있다.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가령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속지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주한 외교 사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면책 특권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의 장소적 효력은 법이 어떤 공간에 적용되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전체 영역인 영토, 영해, 영공에 걸쳐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법 중 일부 조항처럼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도 있다.

* 공포: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DAY 03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도 적법한 절차로 제정되었다면 공동체의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	☐
2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
3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까닭은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4	속지주의는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자국법을 적용할 때 생기는 영토 주권 침범 문제를 보완한다.	☐	☐
5	속지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외교 사절에게도 예외 없이 우리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3

지문 2 / 2

기술

2024년 9월 고1 학력평가 21~25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인터넷 서버에 저장된다. 그런데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친 후 연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암호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키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동형암호가 등장하였다.

동형암호는 동형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동형성이란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특정 연산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를 한 결과와 같은 것을 말한다. 이때 연산의 횟수에 제한 없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부분 동형암호,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제한적 동형암호라고 하며, 횟수에 제한 없이 컴퓨터의 주된 연산인 덧셈, 곱셈에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완전 동형암호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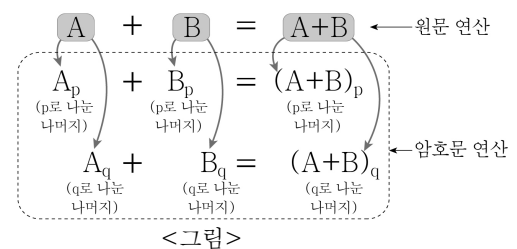
완전 동형암호는 암호화에 사용하는 원리에 따라 격자 기반, CRT(Chinese Remainder Theorem) 기반 등으로 나뉜다. 그중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는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하여 만들어졌다. 이 방식은 원문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변환하고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화한다. 암호키 p 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무작위로 오롯값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그래서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할수록 오롯값이 커지게 되며, 특히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롯값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일정 횟수 이상 수행하면 원문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롯값이 한계치에 이른 암호문은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정 횟수의 덧셈과 곱셈 연산을 수행하여 암호문에 오롯값이 누적되면, 다른 암호키로 해당 암호문과 암호키 p 를 암호화한다. 그리고 복호화 회로를 통해 기존의 암호키 p 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복호화하면 그동안의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롯값이 제거된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이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서 오롯값이 추가되지만 그 크기가 기존의 누적된 것보다 작아서 적절하게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수행한다면 지속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원문을 비트 단위로 변환하여 각 비트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원문에 비해 암호문의 값이 10~100배가량 커져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별 비트 단

위로 암호문의 연산과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최근에는 효율성을 개선한 CRT 기반 완전 동형암호가 등장하였다. 이 방식은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이용하고, 이 나머지 값에서 원문을 복호화하는 방법이다. 이때 암호키의 개수는 임의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진다. 암호키가 두 개일 때 정수로 된 원문 A 와 B 를 덧셈 연산한 결과가 동형성을 갖는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자. 우선 서로소*인 임의의 정수 p 와 q 를 암호키로 정하고 정수로 된 원문 A 와 B 를 각각의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면 A_p , A_q 와 B_p , B_q 가 되는데 이 나머지 값이 원문 A 와 B 의 암호문이 된다. 그리고 <그림>처럼 각 원문을 동일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인 A_p 와 B_p , A_q 와 B_q 끼리 서로 덧셈 연산을 수행한다. 만약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암호키와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한 번 더 암호키로 나누어 나머지 값을 구한다. 그러면 연산 수행의 결과값인 A_p+B_p , A_q+B_q 가 원문 A 와 B 를 직접 덧셈 연산한 결과값을 암호키 p 와 q 로 나눈 나머지 값인 $(A+B)_p$, $(A+B)_q$ 와 같다. 그리고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값과 각 암호키를 알면 원문을 복호화할 수 있다.



이 방식 또한 안전성을 위해서 암호키의 개수를 늘려 계산이 복잡하고 무작위로 오롯값을 추가하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데이터를 정수 단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암호화하는 격자 기반의 방식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CRT 방식은 원문보다 작은 나머지 값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격자 기반의 방식에 비해 연산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 연산 속도가 빠르고, 격자 기반의 방식과 달리 병렬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 비트: 정보량의 최소 기본 단위. 1비트는 이진수 체계(0, 1)의 한 자리.

* 서로소: 여러 개의 수 사이에 1 이외의 공약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

DAY 03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이 글은 7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연산을 위해 복호화를 거쳐야 해서 비밀키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O	X
2	제한적 동형암호는 연산 횟수에 제한 없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다.	O	X
3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에서는 덧셈보다 곱셈 연산을 수행할 때 오룻값이 급격하게 커진다.	O	X
4	부트스트래핑을 거치면 새로운 암호문에는 오룻값이 전혀 추가되지 않는다.	O	X
5	CRT 기반 방식은 원문보다 큰 값으로 연산하지만 병렬 연산이 가능해 속도가 빠르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7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3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법의 효력과 범위

2024년 6월 고1 학력평가 26~30번

법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추어야 효력을 발휘하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시간적·인적·장소적 효력으로 나뉜다.

타당성·실효성 → 시간적 효력 → 속인주의 → 속지주의 → 장소적 효력

- ① 법의 효력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발휘됨
- ② 시간적 효력: 시행일(없으면 공포 후 20일)부터 발생, 소급 적용은 원칙적 금지
- ③ 인적 효력: 국적국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와 그 한계
- ④ 속인주의의 한계를 자국 영역 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속지주의로 보완함
- ⑤ 장소적 효력: 영토·영해·영공 전체에 적용, 특정 지역만 적용하는 예외 있음

- 1 **X**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도 적법한 절차로 제정되었다면 공동체의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 1문단: 실효성이 없는 법은 효력이 없으며, 타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 **O**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2문단: 시행일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시 자동 발생
- 3 **O**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까닭은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문단: 소급 적용 시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적 혼란
- 4 **O** 속지주의는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게 자국법을 적용할 때 생기는 영토 주권 침범 문제를 보완한다.
→ 3문단: 속인주의를 적용하면 다른 나라 영토 주권 침범 → 속지주의로 보완
- 5 **X** 속지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외교 사절에게도 예외 없이 우리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 3문단: 주한 외교 사절은 면책 특권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지문 2 동형암호의 원리

2024년 9월 고1 학력평가 21~25번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할 수 있는 동형암호 가운데 완전 동형암호는 격자 기반과, 효율을 개선한 CRT 기반으로 나뉜다.

복호화 위험 → 동형성 → 격자 기반 → 부트스트래핑 → CRT 기반

- ① 복호화 과정의 유출 위험 때문에 암호 상태로 연산하는 동형암호가 등장함
- ② 동형성의 개념과 부분·제한적·완전 동형암호를 구분함
- ③ 격자 기반: 비트별로 암호화하고 오롯값을 더해, 연산할수록 오롯값이 커짐
- ④ 오롯값이 한계에 이르면 부트스트래핑으로 누적 오롯값을 제거함
- ⑤ 격자 기반의 단점: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연산 속도가 느림
- ⑥ CRT 기반: 원문을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을 암호문으로 사용함
- ⑦ CRT 기반은 저장량이 많고 연산이 빠르며 병렬 연산이 가능함

- 1 **O**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연산을 위해 복호화를 거쳐야 해서 비밀키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 1문단: 복호화 과정을 거친 후 연산 → 이 과정에서 비밀키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
- 2 **X** 제한적 동형암호는 연산 횟수에 제한 없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을 갖는다.
→ 2문단: 그것은 부분 동형암호. 제한적 동형암호는 연산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 3 **O** 격자 기반 완전 동형암호에서는 덧셈보다 곱셈 연산을 수행할 때 오롯값이 급격하게 커진다.
→ 3문단: 특히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롯값이 급격하게 커진다
- 4 **X** 부트스트래핑을 거치면 새로운 암호문에는 오롯값이 전혀 추가되지 않는다.
→ 4문단: 새 암호문에도 오롯값이 추가되지만 기존 누적값보다 작다
- 5 **X** CRT 기반 방식은 원문보다 큰 값으로 연산하지만 병렬 연산이 가능해 속도가 빠르다.
→ 7문단: 원문보다 작은 나머지 값으로 연산하여 연산 값이 작아 속도가 빠르고, 병렬 연산도 가능

DAY 04

지문 1 / 2

사회·법

2024년 9월 고1 학력평가 33~37면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로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로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해당성은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 요건상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성립 요건인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가치 판단으로,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 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사유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성립 요건인 책임은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 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로 강요된 행위가 있다.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나눌 수 있다. 고의범은 행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로,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하고 있다.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이 대부분이지만,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죄를 범할 의사는 없지만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과실로 인한 범죄인 과실범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 처

벌하고 있다.

과실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먼저 인식의 유무에 따라 과실의 유형을 나누면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했지만 주의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통화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실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통상의 과실’,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법정형에 차이가 있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계속적·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이 경우 업무는 결과 발생 야기 행위의 내용이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중과실은 통상의 과실에 비해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DAY 04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이 글은 7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X
2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면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불가능해도 범죄가 된다.	O	X
3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며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는 과실범에 포함된다.	O	X
4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 차이가 없다.	O	X
5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결과 발생과 무관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면 인정된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7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4

지문 2 / 2

기술·공학

2024년 10월 고1 학력평가 27~30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구조물은 부재를 바탕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인 하중을 받는다. 구조물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될 수 있으므로,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과 부재의 허용하중을 계산해야 한다. 허용하중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하중의 최댓값인데,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부재에 가해질 하중보다 부재의 허용하중을 더 크게 설계해야 한다.

하중에는 부재의 단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하중이 있다. 수직하중은 부재를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부재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며, 이를 각각 압축하중과 인장하중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부재는 압축하중보다 인장하중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조물을 설계할 때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은 중요한 요소로 다뤄진다.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재의 단면에 작용하는 허용응력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응력은 하중에 의해 부재의 단면에 나타나는 힘으로, 하중을 단면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허용응력은 부재의 안전을 위해 부재에 허용되는 응력의 최댓값으로, 인장하중에 대한 허용응력을 구할 때는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장 시험을 시행한다. 인장 시험은 시편*에 가하는 인장하중을 일정 크기 만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인장하중의 변화에 따라 시편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한다.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인 연강을 대상으로 인장 시험을 한다고 해 보자. 시편에 인장하중이 점진적으로 가해지면 시편의 단면에는 인장하중에 의한 응력이 나타나고, 시편의 최초 길이에 대해 늘어난 길이의 비율인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 연강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서는 크게 탄성 구간, 소성변형 구간, 변형경화 구간, 네킹 구간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탄성 구간에서는 인장하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때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변형률이 증가하며, 응력과 시편의 변형률은 비례 관계이다. 이 구간은 재료의 탄성이 작용하는 구간이므로, 만약 이 구간에서 시편에 가해진 인장하중을 제거한다고 가정하면, 시편은 탄성에 의해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가게 된다. 탄성의 정도는 탄성계수로 나타낸다. 탄성계수는 재료마다 다른 고유한 값으로 탄성계수가 작은 재료일수록 탄성이 크다. 이후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하중이 가해지면 소성변형 구간이 시작된다. 소성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시편은 탄성을 잃는다. 이는 소성변형 구간에서 시편의 결정 구조 및 원자의 결합 상태에 변형이 일어나, 시편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소성변형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의 응력을 항복응력이라고 하며, 소성변형 구간에서는 시편의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소성변형 구간이 끝나면 변형경화 구간이 나타난다. 이 구간에서는 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편의 변형률이 증가하고, 응력이 계속 증가하여 극한응력을 넘으면 네킹 구간에 진입한다. 네킹 구간에서는 시편의 변형률이 계속 증가하다가 시편이 완전히 끊어지는 파단 현상이 발생한다.

이처럼 연강의 인장 시험에서는 네 개의 구간과 항복응력 및 극한응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장하중이 가해졌을 때, 연강이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재료인 연성 재료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취성 재료는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거의 없어,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하중이 가해졌을 때 거의 늘어나지 않고 끊어지는 재료이다. 취성 재료는 항복응력과 소성변형 구간이 뚜렷하지 않고 대체로 극한응력이 뚜렷하다. 유리는 대표적인 취성 재료로, 연성이 거의 없어서 탄성 구간을 넘어서는 인장하중이 가해졌을 때 거의 늘어나지 않고 파단되어 영구적 변형이 일어난다.

부재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료의 특성에 따라 먼저 허용응력을 산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성 재료는 항복응력을, 취성 재료는 극한응력을 각각 안전계수로 나누어 허용응력을 구한다. 이때 안전계수는 부재가 하중에 의해 파손되어 영구적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계수는 허용응력을 항복응력이나 극한응력보다 낮추기 위해 1을 초과하는 값으로 결정되며 안전계수가 클수록 허용응력은 낮아진다. 허용응력을 구한 후에는 허용응력에 부재의 단면의 면적을 곱하여 허용하중을 산출할 수 있다. 이는 부재의 단면의 면적에 따라 허용하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시편: 역학적 시험을 하기 위하여 만든 일정한 형상과 치수의 재료.

DAY 04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부재는 일반적으로 인장하중보다 압축하중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다.	O	X
2	탄성 구간에서 시편에 가해진 인장하중을 제거하면 시편은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간다.	O	X
3	탄성계수가 큰 재료일수록 탄성이 크다.	O	X
4	취성 재료는 항복응력과 소성변형 구간이 뚜렷하지 않고 대체로 극한응력이 뚜렷하다.	O	X
5	안전계수가 클수록 허용응력은 높아진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4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범죄 성립과 과실

2024년 9월 고1 학력평가 33~37번

범죄는 구성 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을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성립하며, 형법은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고 과실을 인식 유무와 과실범 규정에 따라 나눈다.

성립 3요건 → 조각 사유 → 고의범·과실범 → 인식 유무 → 법정형 차이

- ① 범죄는 구성 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을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성립함
- ② 구성 요건 해당성은 행위가 형법상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③ 위법성은 추정되지만 정당방위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범죄 아님
- ④ 책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으로, 강요된 행위 등은 책임이 조각됨
- ⑤ 범죄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고의범과 부주의로 인한 과실범으로 나뉨
- ⑥ 인식 유무에 따라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로 나뉨
- ⑦ 과실범 규정에 따라 통상의 과실·업무상 과실·중과실로 나뉘고 처벌이 다름

- 1 O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문단: 정당방위(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라고 볼 수 없다
- 2 X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라면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불가능해도 범죄가 된다.
→ 책임 부분: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 3 X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며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는 과실범에 포함된다.
→ 고의범 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
- 4 O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 차이가 없다.
→ 과실 유형 부분: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고 과실범 성립 여부에 영향 없음
- 5 X 업무상 과실은 업무가 결과 발생과 무관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면 인정된다.
→ 마지막 부분: 결과 발생 야기 행위와 무관한 업무 중 발생한 결과는 업무상 과실 인정 불가

지문 2 인장 시험과 허용하중

2024년 10월 고1 학력평가 27~30번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 인장 시험으로 재료의 성질을 파악하고, 항복응력·극한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눈 허용응력으로 허용하중을 산출한다.

허용하중 → 인장 시험 → 응력 구간 → 연성·취성 → 안전계수

- ① 구조물 설계 시 부재의 허용하중을 가해질 하중보다 크게 해야 한다
- ② 부재는 인장하중에 더 취약해, 허용응력을 구하려 인장 시험을 한다
- ③ 연강 인장 시험에서는 탄성→소성변형→변형경화→네킹 구간이 나타난다
- ④ 연성 재료인 연강과 달리 취성 재료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끊어진다
- ⑤ 항복·극한응력을 안전계수로 나눠 허용응력, 단면적을 곱해 허용하중을 구한다

- 1 X 부재는 일반적으로 인장하중보다 압축하중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다.
→ '부재는 압축하중보다 인장하중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다'
- 2 O 탄성 구간에서 시편에 가해진 인장하중을 제거하면 시편은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간다.
→ 탄성 구간에서 하중을 제거하면 '탄성에 의해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가게 된다'
- 3 X 탄성계수가 큰 재료일수록 탄성이 크다.
→ '탄성계수가 작은 재료일수록 탄성이 크다'
- 4 O 취성 재료는 항복응력과 소성변형 구간이 뚜렷하지 않고 대체로 극한응력이 뚜렷하다.
→ 4문단 '취성 재료는 항복응력과 소성변형 구간이 뚜렷하지 않고 대체로 극한응력이 뚜렷하다'
- 5 X 안전계수가 클수록 허용응력은 높아진다.
→ 안전계수는 1을 초과하며 '안전계수가 클수록 허용응력은 낮아진다'

DAY 05

지문 1 / 2

인문·심리

2024년 10월 고1 학력평가 22~26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도덕 심리학의 중심축을 형성해 온 콜버그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는 도덕적 이해를 지식 구조, 즉 인지의 발달에 의한 것으로 보고,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과연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블라지는 콜버그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며, 왜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이해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블라지는 콜버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콜버그와 달리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며, 도덕적 행동을 이끌기 위한 ‘도덕적 자아 모델’을 제시하였다.

도덕적 자아 모델은 도덕적 이해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데 있어 자아가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기존의 학자들이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관심을 두었다면, 블라지는 전제로서의 자아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 자아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구성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개인마다 다른 자아 구성의 방식에 따라 자아의 여러 특징들은 중심적인 것, 주변적인 것 등으로 위계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아를 구성하는 데 ‘친절’이나 ‘우정’을 ‘경쟁’보다 중심적 위치에, 어떤 사람은 주변적 위치에 놓을 수 있다. 블라지는 자아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통해, 인간은 선천적인 기질에 따라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도덕적 자아 모델에서는,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심리적 요소로 ‘도덕적 정체성’, ‘도덕적 책임감’, ‘자아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아 모델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정체성은 도덕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어, 해야 할 행동의 방향을 알려 준다. 도덕적 책임감과 자아 일관성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하여 도덕적 행동을 이끈다.

도덕적 자아 모델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정체성은 도

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것, 즉 도덕성과 자아를 통합하는 것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도덕성’은 선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정체성’은 본질적인 자아를 의미한다. 이때 도덕성이 자아의 중심이 되는 정도, 즉 도덕적 통합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도덕적 통합은 ‘끊임없이 주의를 요하는, 부서지기 쉬운 것’이기에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하려는,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블라지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도덕적 이상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며 도덕적 이해를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 이해가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도덕성을 자아의 중심에 두려면 도덕적 이해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두 번째 구성 요소인 도덕적 책임감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그런 행동을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도덕적 책임감은 도덕성이 자아와 통합된 결과로 나타나는데, 도덕적 책임감은 반드시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욕구이며,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의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자아 일관성은, 자신의 자아의식과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블라지에 의하면, 자아 일관성은 단지 본능적인 경향성이나 자기 충족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도덕적 이상과 일치된 행동을 하려는 자아 일관성은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오며, 도덕적 책임감으로부터 도덕적 행동으로의 전환은 자아 일관성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자아의 균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아의 여러 특징들 중 선(善), 정의, 공평 등과 같은 도덕적 범주를 자아의 중심에 둘 때,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과 일치된 행동을 하고자 하는 자아 일관성은 도덕적 행동을 이끄는 추동력이 된다.

DAY 05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이 글은 6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콜버그는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보았다.	O	X
2	블라지는 자아를 선천적 기질에 따라 정해지는 고정불변의 상태로 보았다.	O	X
3	도덕적 정체성은 행동의 방향을 일러 주고, 도덕적 책임감과 자아 일관성은 추동력을 제공한다.	O	X
4	도덕적 책임감은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O	X
5	블라지에 따르면 자아 일관성은 본능적인 경향성이나 자기 충족 욕구에서 비롯된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6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5

지문 2 / 2

과학·생명

2025년 3월 고1 학력평가 30~3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광합성의 과정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그 효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잎에 있는 엽육 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 광합성의 과정은 명반응과 암반응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해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식물은 잎 뒤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기공을 열어 산소를 배출한다. 기공은 산소를 배출할 때뿐만 아니라 암반응에 필요한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거나 체내의 수분을 배출해야 할 때에도 열린다.

암반응은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 에너지와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 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하고,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단계이다. 암반응 과정은 캘빈 회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 탄소는 RuBP와 결합하며,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하여 촉진된다. 이 결합으로 3개의 탄소가 결합한 3탄당이 형성되고, 3탄당은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 포도당을 생성하며,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RuBP로 재생되어 이산화 탄소와 결합되는 과정이 다시 진행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캘빈 회로라고 하는데, 캘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 탄소 농도, 적절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RuBP가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 포도당 생산의 효율이 떨어진다.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 탄소와 RuBP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3탄당임을 고려하여 C3 식물이라고 부

른다.

그런데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체내의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식물은 기공을 열지 않는다. 이로 인해 포도당의 생산이 어려워지면 식물은 잘 생장하지 못한다. 가령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C3 식물이자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쌀과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C3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여 고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옥수수, 조, 수수 등 고온의 열대 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C4 식물은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공간인 엽육 세포는 C3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 식물의 엽육 세포에는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PEP가 존재한다. PEP와 이산화 탄소가 결합되면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인 4탄당이 형성되는데, C4 식물은 이를 고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탄당은 엽육 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관속초 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 분해되어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 탄소를 배출한다.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 탄소는 유관속초 세포 속에 농축되었다가 캘빈 회로를 통하여 포도당을 형성하는 데 쓰이는데, C3 식물과 C4 식물의 캘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C4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 속의 이산화 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C3 식물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인다.

C4 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물량의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광합성량은 전체 광합성량의 23%에 달한다. 이러한 C4 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AY 05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이 글은 6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명반응으로 생성되는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끝없이 증가한다.	☐	☐
2	기공은 산소 배출뿐 아니라 이산화 탄소 흡수나 수분 배출이 필요할 때에도 열린다.	☐	☐
3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수분이 지나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기공을 열지 않는다.	☐	☐
4	C3 식물과 C4 식물은 캘빈 회로의 작동 방식이 서로 다르다.	☐	☐
5	C4 식물에서 PEP가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는 곳은 유관속초 세포이다.	☐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6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5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블라지의 도덕적 자아

2024년 10월 고1 학력평가 22~26번

블라지는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되어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도덕적 정체성·책임감·자아 일관성을 핵심 요소로 하는 도덕적 자아 모델을 제시했다.

콜버그 비판 → 능동적 자아 → 도덕적 정체성 → 도덕적 책임감 → 자아 일관성

- ① 콜버그와 달리 블라지는 도덕적 이해가 자아와 통합돼야 행동이 된다고 봄
- ② 도덕적 자아 모델은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자아가 행동의 핵심이라 본다
- ③ 도덕적 정체성은 방향을, 책임감·자아 일관성은 추동력을 제공한다
- ④ 도덕적 정체성: 도덕성을 자아 중심에 둘수록 행동 가능성이 높아진다
- ⑤ 도덕적 책임감: 외부 요구가 아닌 자아 스스로의 엄중한 의무에서 생긴다
- ⑥ 자아 일관성: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와 책임감을 행동으로 전환시킨다

- 1 O 콜버그는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보았다.
→ 1문단 '도덕적 이해가 자동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 2 X 블라지는 자아를 선천적 기질에 따라 정해지는 고정불변의 상태로 보았다.
→ '자아는 고정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구성 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은 수동적 존재가 아님
- 3 O 도덕적 정체성은 행동의 방향을 일러 주고, 도덕적 책임감과 자아 일관성은 추동력을 제공한다.
→ 3문단 정체성은 '방향을 일러 준다', 책임감과 자아 일관성은 '추동력을 제공'
- 4 X 도덕적 책임감은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엄중한 의무에 의해' 생김
- 5 X 블라지에 따르면 자아 일관성은 본능적인 경향성이나 자기 충족 욕구에서 비롯된다.
→ '자아 일관성은 단지 본능적인 경향성이나 자기 충족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도덕적 정체성에서 나옴

지문 2 C3 식물과 C4 식물

2025년 3월 고1 학력평가 30~33번

C3 식물은 고온·건조할 때 기공을 닫아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지만, C4 식물은 두 공간에서 광합성하며 이산화 탄소를 농축해 높은 효율을 보인다.

명반응 → 암반응 → C3의 한계 → C4 식물 → 기후 위기

- ① 서식 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하도록 진화한 식물이 있다
- ②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화학 에너지를 만들고 산소를 낸다
- ③ 암반응은 캘빈 회로로 포도당을 만들며, 첫 화합물이 3탄당이면 C3 식물이다
- ④ C3 식물은 고온·건조할 때 기공을 닫아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
- ⑤ C4 식물은 엽육 세포에 4탄당으로 저장 후 유관속초 세포에서 CO₂를 농축한다
- ⑥ C4 식물은 생물량 5%지만 광합성량 23%로 기후 위기 대응의 열쇠가 된다

- 1 X 명반응으로 생성되는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끝없이 증가한다.
→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
- 2 O 기공은 산소 배출뿐 아니라 이산화 탄소 흡수나 수분 배출이 필요할 때에도 열린다.
→ 2문단 기공은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거나 체내의 수분을 배출해야 할 때에도 열린다'
- 3 O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수분이 지나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기공을 열지 않는다.
→ 4문단 '기공을 열면 체내의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식물은 기공을 열지 않는다'
- 4 X C3 식물과 C4 식물은 캘빈 회로의 작동 방식이 서로 다르다.
→ 'C3 식물과 C4 식물의 캘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
- 5 X C4 식물에서 PEP가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는 곳은 유관속초 세포이다.
→ PEP는 '엽육 세포'에 존재하며, 4탄당이 나중에 유관속초 세포로 이동함

DAY 06

지문 1 / 2

인문·윤리

2025년 3월 고1 학력평가 16~21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고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므로 단지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양적 쾌락주의의 입장을 가졌다.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본성과 상충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 쾌락이고, 정신적 쾌락은 고급 쾌락이다.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닌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 추구나 이기심이 상충할 때 법률, 여론 등과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했는데, 양심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에 고통을 준다. 양심은 구성원들과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에 토대를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경제학자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보고,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효용 이론을 제시하였다.

효용이란 의사 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으로,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보았다.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한계 효용이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위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을 말한다. 그런데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하여 소비할 때 총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은우가 1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은우의 튀김과 초밥에 대한 한계 효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튀김과 초밥의 한계 효용>

번째	1	2	3	4	5
튀김	16	8	4	2	1
초밥	5	4	3	2	1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 각각의 총효용을 계산해 보면 은우는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은우가 얻을 수 있는 총효용이 37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인 튀김 3개와 초밥 2개의 한계 효용이 4로 일치한다. 위의 상황과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보았고, 이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층의 효용 감소분보다 저소득층의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에 의거하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누진적 소득세로 얻은 재정 수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DAY 06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8

9

이 글은 9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O	X
2	밀은 법률이나 여론 같은 외적 제재가 이기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O	X
3	밀에 따르면 양심은 타고난 사회적 감정에 토대를 두고 교육 등 후천적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O	X
4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늘어날수록 점차 증가한다.	O	X
5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해진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9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6 지문 2 / 2

과학·지구

2025년 6월 고1 학력평가 29~3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지진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이때 지각 부분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를 지진파라고 한다. 대표적인 지진파로는 P파와 S파가 있다.

P파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같은 지진파로, 매질이 압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전달되며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 P파의 전파 속도는 초속 약 6~8km이지만, 진폭은 작아 지진 피해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 반면에 S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지진파로, 전파 속도는 초속 약 3~4km로 P파보다 느리지만 진폭이 비교적 커서 지진 피해 정도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 두 지진파가 관측소에 도착하는 시간의 차이를 PS시라고 하는데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시는 커진다. PS시를 활용하면 지진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P파와 S파가 통과할 수 있는 매질에는 차이가 있다.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반면,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S파가 도착하지 못하는 S파 암영대가 생긴다. P파는 맨틀과 외핵, 외핵과 내핵과 같이 상태가 다르거나 같은 상태라도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P파 역시 암영대가 생긴다. 또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느려진다.

한편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내진설계라고 하는데, 내진구조, 제진구조, 면진구조의 세 유형이 있다. 내진구

조는 강한 지진파에도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게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보강하여 기둥과 벽 자체를 튼튼하게 짓는 것이다. 내진벽과 같은 부자재를 설치하여 강한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내구성이 높아지도록 건물을 짓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내구력만을 높인 것이라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건물 구조에 심각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진구조는 제진 장치가 땅으로부터 건물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지하고, 건물의 흔들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하여 건물의 붕괴를 막는 구조이다. 철재 빔과 같은 장치로 건물에 X자 등의 제진 장치를 보강하여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층 건물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내진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선 두 구조가 건물이 지진력을 버티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면진구조는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파동의 에너지는 주기가 짧을수록 크기 때문에 면진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길게 바꾸어 충격을 감소시킨다. 보통 지면 위에 바로 건물을 세우는 것과 달리 면진구조는 건물과 땅 사이에 고무 스프링과 댐퍼, 베어링 등을 설치해 흔들림이 건물로 전해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다. 건물 자체와 지면을 떨어뜨리면 진동이 줄어들어 전달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건물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매질: 어떤 물리적 작용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하여 주는 매개물로, 고체, 액체, 기체 등이 있음.

DAY 06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이 글은 6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P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지진파이다.	O	X
2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시는 커진다.	O	X
3	S파는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 없어 S파 암영대가 생긴다.	O	X
4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느려진다.	O	X
5	면진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짧게 바꾸어 충격을 감소시킨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6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6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밀의 공리주의와 효용

2025년 3월 고1 학력평가 16~21번

(가)는 밀이 질적 쾌락주의와 내적 제재(양심)로 공리주의를 발전시킨 과정을, (나)는 한계 효용의 법칙으로 합리적 소비와 누진적 소득세를 설명하는 효용 이론을 다룬다.

최대 행복 → 질적 쾌락 → 양심 → 한계 효용 → 누진세

- (가)① 공리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쾌락까지 고려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가)② 밀 이전 양적 쾌락주의는 '돼지의 철학', 이기심과의 상충으로 비판받았다
 (가)③ 밀은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으며 정신적 쾌락이 고급 쾌락이라 보았다
 (가)④ 밀은 외적 제재보다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해 이기심 극복을 꾀했다
 (가)⑤ 밀은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①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소비 과정을 이해하려 효용 이론을 제시했다
 (나)② 한계 효용은 소비량이 늘수록 줄어든다(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나)③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같은 지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균등의 법칙)
 (나)④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누진적 소득세 정책의 합리적 근거가 된다

- 1 O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 (가) 2문단 감각적·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 2 X 밀은 법률이나 여론 같은 외적 제재가 이기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 밀은 외적 제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발적 행동을 이끄는 힘이 아님
- 3 O 밀에 따르면 양심은 타고난 사회적 감정에 토대를 두고 교육 등 후천적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 (가) 4문단 '타고난 사회적 감정에 토대를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의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함양된다'
- 4 X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늘어날수록 점차 증가한다.
 → '한계 효용은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 5 X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해진다.
 → 균등해지는 지점은 '개인이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문 2 지진파와 내진설계

2025년 6월 고1 학력평가 29~33번

지진파인 P파와 S파는 속도·진폭·통과 매질이 다르며, 지진 피해를 줄이는 내진설계에는 내진구조·제진구조·면진구조가 있다.

P파·S파 → PS시 → 암영대 → 내진구조 → 제진구조 → 면진구조

- ① 지진 에너지는 지진파로 전달되며, 대표적으로 P파와 S파가 있다
 ② P파는 빠르지만 피해가 작고, S파는 느리지만 진폭이 커 피해가 크다
 ③ S파는 고체만 통과해 외핵을 못 지나고, P파는 굴절로 암영대가 생긴다
 ④ 내진구조는 기둥·벽을 튼튼히 해 버티지만 구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⑤ 제진구조는 흔들림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지지해 붕괴를 막는다
 ⑥ 면진구조는 건물과 땅 사이 장치로 건물에 전달되는 지진력 자체를 줄인다

- 1 X P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수직인 지진파이다.
 → P파는 진행 방향이 진동 방향과 '같은' 지진파이고, 수직인 것은 S파
- 2 O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시는 커진다.
 → 2문단 '진원에서 멀어질수록 PS시는 커진다'
- 3 O S파는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 없어 S파 암영대가 생긴다.
 →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액체 상태인 외핵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암영대가 생김
- 4 X 지진파의 전달 속도는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느려진다.
 → '매질의 밀도가 높아지면 빨라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느려진다'
- 5 X 면진구조는 지진파의 파장을 짧게 바꾸어 충격을 감소시킨다.
 → 주기가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므로 면진구조는 '파장을 길게 바꾸어 충격을 감소'

DAY 07

지문 1 / 2

사회·법

2025년 3월 고1 학력평가 34~38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법질서 아래에서는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두 분야는 형사법과 민사법이다. 형사법은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며 민사법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형사법의 목적은 사회 질서 유지 및 범죄 처벌로,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한다. 여기서 형벌은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 및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사건 당사자들이 평등한 관계임을 전제하고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상이할 수밖에 없다.

형사 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으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피고인으로 기소하며 소송이 시작된다. 이때 기소란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다.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반박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입증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의 정도를 따진 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 이때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범죄 동기와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므로 두 사람의 최종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 규율하지 않기로 정한 폭행죄, 모욕죄 등의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원고가 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은 피고가 된다. 이때 각 당사자는 모두 소송 대리인인 변호인을 쓸 수 있다. 민사 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하여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사 소송은 형

사 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소송이 종결된다.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만약 갑이 을에게 맞아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검사가 법원에 을을 상해죄라는 법규로 처벌해 달라는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갑이 을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 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증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형사 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한 입증을 요구한다. 즉, 증거가 기소 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즉 형사 소송법 제275조의2에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 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유죄가 될 수 없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흉악한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 민사 소송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이는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로 해석된다. 결국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원고와 피고의 입증 정도가 51 대 49라면 원고의 손을 들어 주게 된다.

* 법인: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단과 재단.

DAY 07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이 글은 6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한다.	O	X
2	폭행죄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소송이 진행된다.	O	X
3	민사 소송은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종결된다.	O	X
4	형사 소송에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100 중 51이면 유죄가 선고된다.	O	X
5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그것은 곧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한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6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7

지문 2 / 2

과학·생명

2025년 9월 고1 학력평가 27~30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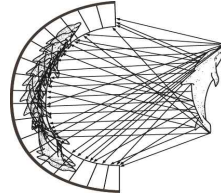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선택 과정의 누적으로, 오늘날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 기관도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불가능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서, 불가능 산의 최정점에 있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은 깎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그곳에 이른 게 아니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눈의 진화 과정에서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불가능 산의 밑자락에는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가 자리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오르막에서는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그 충격을 신경 자극으로 변환하는 일을 담당하는 광세포가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광세포 그 자체는 동물에게 빛의 유무만을 알려 주므로 빛의 방향과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 감지하려면 한쪽 면에는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 광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면의 뒤편에는 암막이 있게 만든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합이나 갯지렁이 등의 눈이 이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이 형성되지는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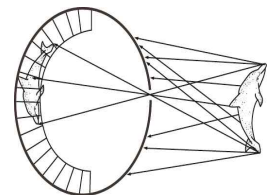
오목한 눈에 돌고래의 상이 맺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무수히 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오목한 망막은 <그림 1>과 같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 상으로 뒤덮여 결국 하나의 상을 파악해 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상하가 뒤바뀐 도립상이긴 하지만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 상만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계속 좁혀 나가며 불가능 산을 오르는 긴 여정이 시

절⁵
물⁷
난⁷
투⁷
나⁷
지⁷
상⁷
의⁷
류⁷
나⁷
을

작되었다. 그 결과 전복이나 고둥의 눈처럼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과 앵무조개의 눈처럼 완전한 바늘구멍 눈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1>



<그림 2>

그러나 하나의 상만 맺힐 만큼 빛 유입구가 좁아지면 빛의 유입량이 부족해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다. 또한 빛은 파동처럼 움직이며 서로 간섭을 일으켜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 현상을 보이는데,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그래서 유입구를 더 넓게 하는 것도, 좁게 하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한다. 바늘구멍 눈의 이러한 상황을,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이 흔히 다뤄지는 경제학의 특성을 본떠 [광자 경제학]이라 일컫는다.

빛은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되는데,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은 빛의 굴절을 통해 물체의 상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광자 경제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힌 뒤에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그 뒤에 끼워 넣은 수정체 눈이 나타났다. 수정체를 거친 빛도 도립상을 이루는 것은 여전하지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 아주 밝지 않아도 망막에 선명한 상이 맺힐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불가능 산의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정체 눈을 가지는데, 어류나 파충류 등은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빛의 굴절을 조절하여 대상과의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춘다.

DAY 07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이 글은 7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도킨스는 우리의 눈이 깜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생겨났다고 보았다.	O	X
2	광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 빛이 오는 방향을 알 수 없다.	O	X
3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 현상이 심해진다.	O	X
4	수정체 눈에서는 수정체를 거친 빛이 도립상이 아닌 바로 선 상을 이룬다.	O	X
5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맞춘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7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7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2025년 3월 고1 학력평가 34~38번

형사법과 민사법은 목적·소송 당사자·입증 책임·입증의 정도가 달라, 하나의 사건이라도 두 소송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형사법·민사법 → 소송 당사자 → 입증 책임 → 입증의 정도

- ① 법의 대표 분야로 국가·범죄자 간의 형사법, 개인 간의 민사법이 있다
- ② 형사법은 범죄 처벌, 민사법은 개인 간 분쟁 해결·권리 보호가 목적이다
- ③ 형사 소송은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해 시작되고, 유죄 입증은 검사가 한다
- ④ 민사 소송은 원고·피고가 각자 입증하며, 서로 타협하면 바로 종결된다
- ⑤ 하나의 사건도 형사·민사 소송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 ⑥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 민사는 개연성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

- 1 **O**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한다.
→ 3문단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가 담당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반박할 수 있다'
- 2 **X** 폭행죄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소송이 진행된다.
→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죄·모욕죄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 3 **O** 민사 소송은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종결된다.
→ 4문단 '형사 소송과 달리 두 당사자가 ... 타협하면 바로 소송이 종결된다'
- 4 **X** 형사 소송에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가 100 중 51이면 유죄가 선고된다.
→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51이라면 유죄가 될 수 없다'(51 대 49로 이기는 것은 민사)
- 5 **X**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그것은 곧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한다.
→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피고인의 결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문 2 불가능 산과 눈의 진화

2025년 9월 고1 학력평가 27~30번

도킨스는 눈의 진화를 '불가능 산'의 완만한 비탈을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설명하며, 광세포에서 오목한 눈·바늘구멍 눈을 거쳐 수정체 눈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준다.

불가능 산 → 광세포 → 오목한 눈 → 바늘구멍 눈 → 광자 경제학 → 수정체 눈

- ① 도킨스는 눈의 진화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에 비유했다
- ② 산 밑자락엔 빛 유무만 감지하는 세포, 그 뒤 광세포가 점차 늘어났다
- ③ 빛의 방향을 알려면 암막이 필요해 곡면 뒤에 암막이 있는 오목한 눈이 등장했다
- ④ 오목한 눈은 상이 무수히 맺혀, 유입구를 좁힌 바늘구멍 눈이 나타났다
- ⑤ 유입구가 좁으면 빛 부족·회절 심화로 진퇴양난(광자 경제학)이 생긴다
- ⑥ 유입구를 넓히고 수정체를 끼운 수정체 눈이 등장해 이를 해결했다
- ⑦ 척추동물은 수정체의 위치나 두께를 조절해 초점을 맞춘다

- 1 **X** 도킨스는 우리의 눈이 깎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생겨났다고 보았다.
→ 절벽을 단숨에 오른 게 아니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이른 것
- 2 **O** 광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 빛이 오는 방향을 알 수 없다.
→ '광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3 **O**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 현상이 심해진다.
→ 회절 현상은 '빛의 유입구가 좁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다'
- 4 **X** 수정체 눈에서는 수정체를 거친 빛이 도립상이 아닌 바로 선 상을 이룬다.
→ '수정체를 거친 빛도 도립상을 이루는 것은 여전하지만' 선명한 상이 맺힘
- 5 **X**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초점을 맞춘다.
→ 위치 이동은 어류·파충류, 조류·포유류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

DAY 08

지문 1 / 2

사회·정치

2025년 6월 고1 학력평가 16~20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시민이란 법에 보장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다. 시민에 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하여, 로마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중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 의무의 근거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상이다.

자유주의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자연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선천적인 권리로서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자연권이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내재해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라고 보았다.

자유주의는 국가보다 개인을 우선한다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개인들이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개인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관점은 시민의 의무에 관한 견해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권리를 우선시킨다. 또 불가피하게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개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은 ‘소극적 자유’를 중시했는데, 이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극적 자유는 국가와 타인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적 영역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으며, 간섭이 없는 상태인 방임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일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소극적 자유와 함께 ‘적극적 자유’를 주장하였다. 적극적 자유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외부 간섭의 부재에 만족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과 자기실현을 위한 자율적 삶을 중시하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를 지향한 사상가들은 대체로 개인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유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각자의 양심과 이성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는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달리 시민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써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며, 공동체의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지만, 개인의 우선성을 강조했던 자유주의에 비해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했다.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며, 공동선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이상적인 시민으로 여긴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 전통의 시민적 공화주의와 마키아벨리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전통의 신로마 공화주의이다.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인간의 타고난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국가 안에서만 도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치 참여란 시민의 의무이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치 참여가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자 윤리적 자기실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개인의 권리나 이익보다 시민의 정치적 의무를 더 우선시하였고, 이런 의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신로마 공화주의자들 또한 시민적 공화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 참여의 근거를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이나 윤리적 자기실현에서 찾지 않았다. 그들에 따르면,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외세와 폭정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비지배 자유의 핵심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즉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의 부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 그들은 공공의 법으로써 이러한 자유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공화국의 법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공동의 결정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공화국의 시민은 자신이 만든 법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찾는다.

한편,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치와 자율적 시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부합하여 오늘날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DAY 08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8

9

이 글은 9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의무를 우선시한다.	O	X
2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들은 개인의 능력 신장을 위한 국가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O	X
3	공화주의는 시민의 권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	O	X
4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정치 참여가 덕성을 함양하는 윤리적 자기실현이므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았다.	O	X
5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처럼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았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9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8

지문 2 / 2

기술

2025년 10월 고1 학력평가 21~2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데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적외선은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의 성질을 지닌 전자기파로, 적외선에는 약 0.7마이크로미터에서 1,000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다양한 파장이 포함된다. 파장은 파동이 한 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로,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마루와 그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마루의 높이와 파동의 에너지는 비례하며, 파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은 비례한다. 이러한 적외선의 특징과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흡광 원리에 기반하여,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적외선의 세기 변화량에 따른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다. 이 기기는 광원 램프, 가스 셀, 광학 필터, 감지기로 구성되며, 흡수 과정과 검출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흡수 과정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과정이다. 먼저 기기에 전원이 공급되면 광원 램프에서 적외선이 방출되어 가스 셀 내부로 들어간다. 가스 셀은 광원 램프와 광학 필터 사이에 설치된 관으로, 그 내부에는 측정 대상을 포함한 기체 분자들이 들어 있다. 기체 분자는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들의 결합 상태에 따라 고유한 진동수를 지닌 진동 운동을 한다. 이때 가스 셀에 들어온 적외선 중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면, 해당 적외선이 지닌 파동 에너지는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로 흡수된다. 이로 인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하여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기체 분자에 흡수되지 않은 다른 파장의 적외선들과 함께 광학 필터로 들어간다.

검출 과정은 광학 필터를 이용하여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킨 후, 기체의 농도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광학 필터는 두 개의 반사체 사이에 공진층을 배치한 구조이며, 반사체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박막을 겹겹이 붙여 만든 것이다. 이 구조는 적외선이 박막과 박막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박막을 투과하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반사체를 구성하는 박막의 굴절률과 두께를 정밀하게 계산하면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광학 필터를 통과시킬 수 있다.

가스 셀에서 광학 필터로 들어온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이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할 때, 일부 파장의 적외선은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공진층으로 투과된다. 이때 공진층 내부로 들어온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첫 번째 반사체와 두 번째 반사체 사이에서 반사되며 공진층 내부를 왕복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파동의 마루와 마루가 일치하는 위치에서 서로 만나 중첩되면서 마루의 높이가 커지게 된다. 그 결과, 파동 에너지가 강화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두 번째 반사체까지 투과하며 광학 필터를 나와 감지기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 특정 파장 외의 적외선은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하여 공진층에 도달하더라도 파동 간의 마루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상쇄되거나 반사되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후 감지기에서는 감지기에 도달한 특정 파장의 적외선 세기와 가스 셀 내부에 측정 대상 기체가 없을 때의 기준값을 비교하여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다.

DAY 08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이 글은 4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파동의 마루 높이가 높을수록 파동의 에너지는 작아진다.	O	X
2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면 그 에너지가 분자의 진동 에너지로 흡수된다.	O	X
3	가스 셀을 지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해 파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O	X
4	광학 필터의 반사체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박막을 겹겹이 붙여 만든 것이다.	O	X
5	공진층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마루 위치가 어긋나 상쇄되므로 감지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4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8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2025년 6월 고1 학력평가 16~20번

시민의 자유·권리·의무의 근거를 자유주의는 자연권과 개인에서, 공화주의는 참여와 공동체에서 찾는다.

시민 → 자연권 → 소극·적극 자유 → 공화주의 → 비지배 자유

- (가)① 시민의 뜻, 그 근거를 설명하는 두 사상인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가)② 자유주의는 선천적·보편적인 자연권을 개인 자유와 권리의 근거로 봄
 (가)③ 개인주의 바탕: 권리를 의무보다 우선, 의무 부과엔 자발적 동의 필요
 (가)④ 소극적 자유: 외부 강제에서 벗어난 상태, 사적 영역 보장·방임의 자유
 (가)⑤ 적극적 자유: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실현, 국가 개입을 정당하다고 봄
 (가)⑥ 자유주의는 양심과 이성에 따라 사는 주체적 시민 형성에 기여함
 (나)① 공화주의: 권리는 참여로 성취하는 결과물, 공익 위해 자유 제한 가능
 (나)② 시민적 공화주의는 정치 참여를 그 자체 목적이자 거부할 수 없는 의무로 봄
 (나)③ 신로마 공화주의: 참여는 자유 지키는 수단, 법에 의한 비지배 자유 제시

- 1 X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의무를 우선시한다.
 → '권리와 의무가 충돌할 때, 권리를 우선시한다.'
 2 O 적극적 자유를 지지한 사상가들은 개인의 능력 신장을 위한 국가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3 X 공화주의는 시민의 권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
 → 권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여로 '성취해야 하는 정치적 결과물'이다.
 4 O 시민적 공화주의자들은 정치 참여가 덕성을 함양하는 윤리적 자기실현이므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았다.
 → 참여는 '그 자체가 목적', '덕성을 함양하는 일이자 윤리적 자기실현'.
 5 X 신로마 공화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처럼 자유의 근거를 자연권에서 찾았다.
 → 자연권에서 찾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시민들 스스로가 심의하고 제정한 헌법에서 찾는다.'

지문 2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

2025년 10월 고1 학력평가 21~23번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기체 분자의 흡광 원리와 광학 필터를 이용해 적외선 세기 변화로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다.

적외선 → 흡수 과정 → 광학 필터 → 공진층 → 농도 측정

- ① 적외선의 성질(파장·마루)과 흡광 원리로 기체 농도를 재는 분석기의 구성
 ② 흡수 과정: 진동수가 맞는 기체 분자가 특정 파장 적외선의 에너지를 흡수
 ③ 검출 과정: 굴절률·두께를 계산한 박막 반사체로 특정 파장만 투과시킴
 ④ 공진층에서 마루가 겹친 특정 파장만 통과, 감지기가 기준값과 비교해 농도 측정

- 1 X 파동의 마루 높이가 높을수록 파동의 에너지는 작아진다.
 → '마루의 높이와 파동의 에너지는 비례'한다.
 2 O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면 그 에너지가 분자의 진동 에너지로 흡수된다.
 →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면' 에너지가 '진동 에너지로 흡수된다.'
 3 X 가스 셀을 지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해 파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하여 파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4 O 광학 필터의 반사체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박막을 겹겹이 붙여 만든 것이다.
 →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박막을 겹겹이 붙여 만든 것'.
 5 X 공진층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마루 위치가 어긋나 상쇄되므로 감지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 특정 파장은 마루가 일치해 강화되어 감지기에 도달하고, 상쇄되는 것은 '특정 파장 외의 적외선'이다.

DAY 09

지문 1 / 2

사회·법

2025년 6월 고1 학력평가 21~25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17세의 고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절반 정도 복용을 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라도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지불해야 하므로 이미 지급한 2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했다면, 판매업자와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최근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부모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문제는 앞서 든 사례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도에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함을 의미한다. 즉,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상품 구매자는 그 상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생활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므로,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먼저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의 배제’가 있다. 또한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다. 이때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있다. 다만,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김밥과 과자 같은 간단한 식음료의 구입 등 일상적인 거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 추인 :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

DAY 09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이 글은 6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 O | X |
| 2 | 계약 취소는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함을 의미한다. | O | X |
| 3 | 미성년자가 생활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사서 일부 사용한 뒤 취소하면,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 O | X |
| 4 | 판매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O | X |
| 5 | 판매업자는 계약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6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9

지문 2 / 2

과학·생명

2026년 3월 고1 학력평가 11~14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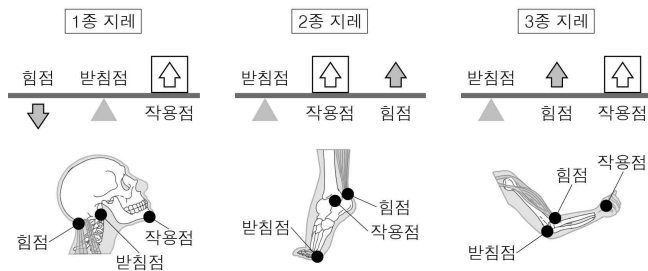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골격근은 힘줄을 통해 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으로, 인체의 운동을 실행하는 기관이다. 우리가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달리기할 때 필요한 힘은 모두 골격근에서 만들어진다. 골격근은 수축 작용으로 힘을 만들어 내며 스스로 이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팔을 굽힐 때 이두근이 수축하면 쌍을 이루는 삼두근은 이완되고, 팔을 펼 때 삼두근이 수축하면 이두근은 이완된다. 그렇다면 골격근을 통해 운동이 실행되는 원리는 무엇일까?

골격근은 지레의 작용을 통해 힘을 전달한다. 지레는 무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데에 쓰는 막대기이다. 여기서 막대기를 고정하는 곳을 받침점, 힘을 가하는 곳을 힘점, 지레를 통해 힘이 미치는 곳을 작용점이라고 한다. 인체에서는 뼈와 뼈가 맞닿아 연결되는 곳인 관절이 받침점, 뼈에 힘을 가하는 힘줄의 끝부분이 힘점, 힘이 미치는 곳이 작용점이 된다. 이러한 지레는 받침점, 힘점, 작용점의 위치에 따라 종류가 구분된다.



위의 그림은 지레의 종류별로 인체에서 일어나는 지레의 작용을 보여 준다. 1종 지레는 ‘힘점-받침점-작용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목 근육이 수축하면 목 관절을 받침점으로 작용점인 턱끝이 위로 올라간다. 2종 지레는 ‘받침점-작용점-힘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발가락 관절을 받침점으로 작용점인 발목이 올라간다. 3종 지레는 ‘받침점-힘점-작용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이두근이 수축하면 팔꿈치 관절을 받침점으로 작용점인 손이 위쪽으로 움직인다.

골격근의 수축 작용은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세포 내의

근육 원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근육 원섬유에는 굵기가 가는 액틴 필라멘트와 굵기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일부분씩 겹쳐 배열되어 있다. 근육 원섬유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액틴 필라멘트만 있어 밝게 보이는 구간을 명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어 어둡게 보이는 구간을 암대라고 하며, 암대 중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구간을 H대라고 한다.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를 서로 이어 주는 선을 Z선이라 하는데, Z선과 Z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한다.

근육 원섬유 마디는 근육 수축의 기본 단위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축한다. 먼저 마이오신 필라멘트에 있는 마이오신 머리는 에너지가 공급되면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어 구름다리 구조를 형성한다. 그다음 마이오신 머리들이 고개를 돌리듯 회전하면서 양쪽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가까워지고 구름다리 구조는 분해된다. 이러한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방식으로 골격근이 수축한다. 이때 각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으며,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는 수가 많을수록 발생하는 힘이 더 커진다.

한편 골격근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인 ATP는 여러 공급원으로부터 제공된다. 근육 세포에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이 소량 저장되어 있는데, 먼저 근육 세포에 저장된 ATP를 사용한 다음,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을 활용해 ATP를 생산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ATP는 호흡을 통해 얻은 산소로 포도당과 지방산을 분해하여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ATP의 생산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며 체내에 젖산을 발생시키고 근육의 피로가 유발된다. 골격근의 활동이 끝난 후에는 ATP와 크레아틴 인산을 생산하여 근육 세포에 다시 저장하고 젖산을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골격근의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할 때 숨을 가쁘게 쉬거나, 운동을 한 후에 숨을 몰아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DAY 09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이 글은 6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골격근은 수축 작용으로 힘을 만들어 내며 스스로 이완할 수 없다.	O	X
2	인체의 지레에서 받침점은 뼈에 힘을 가하는 힘줄의 끝부분이다.	O	X
3	이두근이 수축해 손이 움직이는 것은 '받침점-힘점-작용점' 구조의 3종 지레에 해당한다.	O	X
4	골격근이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가 짧아진다.	O	X
5	근육 세포는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을 먼저 사용한 다음 저장된 ATP를 사용한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6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09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미성년자 계약 취소

2025년 6월 고1 학력평가 21~25번

민법은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해 보호하면서, 상대 판매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둔다.

미성년자 계약 → 취소권 → 원상회복 → 현존 이익 → 판매업자 보호

- ① 동의 없이 산 다이어트 식품 계약을 취소한 학생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
- ② 법정 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 가능, 미성년자 보호 제도
- ③ 계약 취소는 원상회복, 일반적으로 사용한 만큼의 이익은 반환해야 함
- ④ 미성년자는 현존 이익 한도만 반환, 생활필수품이 아니면 사용분 반환 불필요
- ⑤ 판매업자 보호: 취소권 행사의 배제, 확답을 촉구할 권리, 철회권
- ⑥ 대중교통 이용·간단한 식음료 구입 등 일상 거래는 동의 없이 가능

- 1 **X**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
- 2 **O** 계약 취소는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함을 의미한다.
→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함을 의미한다.'
- 3 **O** 미성년자가 생활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사서 일부 사용한 뒤 취소하면,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 '생활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 4 **X** 판매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5 **X** 판매업자는 계약 당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문 2 골격근의 운동 원리

2026년 3월 고1 학력평가 11~14번

골격근은 지레 작용으로 힘을 전달하고, 근육 원섬유 마디의 필라멘트 미끄러짐과 ATP 에너지로 수축한다.

골격근 → 지레 → 근육 원섬유 → 미끄러짐 → ATP

- ① 골격근은 수축으로만 힘을 내며 스스로 이완 못 함, 쌍으로 수축·이완
- ② 골격근은 지레 작용으로 힘 전달: 관절=받침점, 힘줄 끝=힘점
- ③ 1·2·3종 지레의 구조와 목·종아리·이두근에서 일어나는 예
- ④ 근육 원섬유의 액틴·마이오신 필라멘트와 명대·암대·H대·Z선
- ⑤ 마이오신 머리의 구름다리 형성·회전으로 액틴이 미끄러져 들어가 수축
- ⑥ 수축 에너지 ATP의 공급원과 산소 부족 시 젖산·피로, 운동 후 가쁜 숨

- 1 **O** 골격근은 수축 작용으로 힘을 만들어 내며 스스로 이완할 수 없다.
→ '수축 작용으로 힘을 만들어 내며 스스로 이완할 수 없다.'
- 2 **X** 인체의 지레에서 받침점은 뼈에 힘을 가하는 힘줄의 끝부분이다.
→ 받침점은 '관절'이고, 힘줄의 끝부분은 '힘점'이다.
- 3 **O** 이두근이 수축해 손이 움직이는 것은 '받침점-힘점-작용점' 구조의 3종 지레에 해당한다.
→ 3종 지레는 '받침점-힘점-작용점', 예로 이두근 수축 시 손이 위로 움직임.
- 4 **X** 골격근이 수축할 때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가 짧아진다.
→ '각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으며' 미끄러져 들어가는 방식이다.
- 5 **X** 근육 세포는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을 먼저 사용한 다음 저장된 ATP를 사용한다.
→ '먼저 근육 세포에 저장된 ATP를 사용한 다음' 크레아틴 인산을 활용한다.

DAY 10 지문 1 / 2

인문·미학

2025년 9월 고1 학력평가 16~21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10~21번 문단 끝까지 읽으세요.

(가)

샤프츠베리는 근대 미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간주된다. 그의 미학은 초월적 신의 존재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형이상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온 우주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보았던 샤프츠베리는 우주의 속성인 질서, 균형, 조화를 지닌 대상을 아름답다고 여겼으며 그가 생각하는 미는 대상 속에 실재하는 형식적 성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었다.

샤프츠베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형이상학적 전제는 미의 위계성이다. 그는 대상이 지닌 형성력을 기준으로 미를 3등급으로 나누었다.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형성력을 지닌 존재인 신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보았고, 신에 의해서 형성되어 예술품과 같은 아름다운 것도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을 그다음 등급으로, 예술품과 같이 형성된 결과물에 해당하는 물질적 대상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았다. 그는 하위 등급은 언제나 상위 등급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강조하면서, 물질적 대상보다는 인간이, 인간보다는 신이 더 아름답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샤프츠베리는 미적 경험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미를 감지한다고 보았을까? 샤프츠베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자연적 본능인 '취미'를 제시한다.

취미는 미를 감각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내감이자 미를 판단하는 능력으로서, 감각 기관이 대상의 맛, 색깔 등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는 것처럼 취미도 대상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미

를 판단해 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취미는 자연적 본능임에도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미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샤프츠베리는 그 이유를 본능이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취미는 본능이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는 없지만, 사회적 영향에 따라 발현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미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계발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취미의 반응이 즉각적이라는 점은 미적 판단이 우리의 이익과 무관한 것임을 시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샤프츠베리는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무관심성이란 대상에 대해 무심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적 경험의 주체인 인간이 대상의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 대상 그 자체가 지닌 미적 성질, 즉 내재적 가치에 주목해야 대상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합

풍

가

그

대

주

도

자

작

야

제

입

것

자

다

경

에

자

감

파

예

하

(나)

존 듀이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유기체로 보았다. 그래서 경험의 주체인 인간은 환경과 같은 경험 대상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자신에게 적응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며 경험을 생성한다고 보았다.

듀이는 어떤 경험의 시작부터 의도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에 이르기까지, 경험을 이루는 행위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경험을 '하나의 경험'이라고 하였다. 듀이는 이렇게 경험을 이루는 각 행위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경험이 완결되면 하나로 통합된 단일체가 된다고 말했다. '하나의 경험'이 단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질성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질성이란 경험 주체가 어떠한 경험 상황에서 직접 포착하는 것으로, 경험 상황만이 가진 고유하며 독특한 성질을 의미한다. 가령,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자신이 포착한 그 식사 지배적인 특징이 풍성함이었다면 풍성함이 그 식사 지성의 된다. 만약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우아함이 지배적인 특징이었다면 우아함이 그 식사 지성의 된다. 이와 같이 질성은 경험 주체가 경험 대상과 상호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에 같은 경험에 대해서도 주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듀이는 예술도 '하나의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창작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창작자가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감상자로서의 관점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의도한 목적을 향하여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단하며, 끊임없이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듀이는 창작자가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감상자가 어떠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듀이는 감상자의 미적 경험에서 감상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 되려면 감상자도 창작자가 작품을 실제로 만드는 행위에 견줄 만한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창작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감상자도 연습이나 수련을 통해 길러진 자신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 작품을 감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듀이의 관점에서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대면하는 감상자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DAY 10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8

이 글은 8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샤프츠베리는 인간보다 물질적 대상인 예술품이 더 아름답다고 보았다. | O | X |
| 2 | 샤프츠베리에 따르면 취미는 본능이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 없지만, 제대로 발현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 O | X |
| 3 | 샤프츠베리의 무관심성은 대상에 대해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 O | X |
| 4 | 듀이에 따르면 질성은 경험 주체와 대상의 상호 작용 결과이므로 같은 경험이라도 주체마다 다를 수 있다. | O | X |
| 5 | 듀이는 창작자가 감상자의 경험보다 기술적 정교함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8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0 지문 2 / 2

과학·생명

2026년 6월 고1 학력평가 16~19번

1 천천히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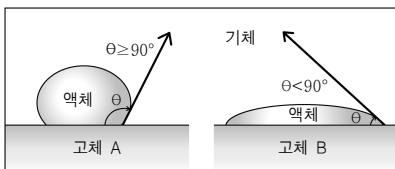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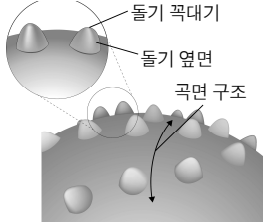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나미브 사막은 연평균 강수량이 극히 적은 환경이지만, 벵겔라 해류의 영향으로 안개가 자주 형성된다. 나미브 사막에 살고 있는 딱정벌레는 등판의 미세 구조와 물방울을 입 쪽으로 유도하는 행동을 통해 이 안개를 수분 자원으로 삼는다. 딱정벌레의 등판은 친수성과 소수성 성질이 교차하는 복합 구조로 되어 있다. 곡면인 등판 표면에는 미세한 돔 형태의 돌기가 배열되어 있는데, 이 돌기의 꼭대기 부분은 물과 결합하기 쉬운 친수성을 띤다. 반면 돌기 옆면과 돌기들 사이의 바닥면은 왁스와 유사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 물을 배척하는 소수성을 띤다. 젖음성이란 액체가 고체 표면에 퍼지는 정도를 일컫는데, 젖음성이 크면 친수성, 작으면 소수성이라고 한다.



딱정벌레의 등판에 나타나는 젖음성의 이질적인 분포는 안개 속의 미세 물입자를 포집하고 이동시키는 핵심 원리로 작용한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촉각과 표면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접촉각이란 액체가 고체 표면 위에 놓일 때, 고체-액체-기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액체 표면이 고체 표면과 이루는 각도이다. 이는 응집력과 부착력 사이의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응집력은 액체 분자끼리 뭉치려는 힘이고 부착력은 액체 분자가 고체 표면에 달라붙으려는 힘이다.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부착력이 강해져 액체가 넓게 퍼지며, 접촉각이 90°

보다 작아져 친수성을 띤다. 반대로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낮을수록 응집력이 우세해져 액체가 구형에 가깝게 맺히며, 접촉각은 90° 이상이 되어 소수성을 띤다. 일반적으로 물에 대한 접촉각이 90° 이상인 소수성 물질의 표면 에너지는 20~40mN/m(미터당 밀리뉴턴) 정도로 유리나 금속 같은 친수성 물질의 표면 에너지보다 낮다. 다시 말해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접촉각은 작아진다.

딱정벌레의 등판에서 물의 포집과 이동은 친수성과 소수성의 차이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안개가 낀 새벽에 바람이 불어 오면 공기 중의 미세한 물입자는 돌기 꼭대기에 충돌한다. 친수성 부분은 표면 에너지가 높아 물입자가 즉시 흡착되어 응축핵을 형성한다. 이후 물입자와의 지속적인 충돌로 물방울들이 합쳐져 그 부피가 커지는데, 물방울의 무게가 부착력을 넘어서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진다. 이때 돌기 꼭대기를 제외한 소수성 부분은 낮은 표면 에너지로 인해 물방울과의 높은 접촉각을 유지하므로 물방울이 표면에 퍼지지 않고 구형을 유지하게 돕는다. 이는 물방울과 표면 사이의 마찰 저항을 극소화하여 미세한 경사의 유도 로만 있어도 입까지 쉽게 흘러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들은 이러한 구조적 효율성을 활용하여 생존을 위한 행동을 더욱 강화한다. 이 딱정벌레는 안개가 짙어지면 짧은 시간 동안 물구나무를 서듯 꼬무니를 들어 올려 몸을 지면과 약 23°로 유지하는 ‘안개 켜기’ 자세를 취한다. 이 자세는 체온을 빨리 손실되게 하고 포식자에게 노출될 위험을 높이지만, 안개 입자가 등판 돌기에 충돌할 확률을 높여 등판의 물방울이 중력에 의해 입 쪽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최적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DAY 10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이 글은 4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딱정벌레 등판 돌기의 꼭대기 부분은 물을 배척하는 소수성을 띤다.	O	X
2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접촉각은 작아진다.	O	X
3	접촉각이 90° 이상이면 응집력이 우세해 액체가 구형에 가깝게 맺히는 소수성을 띤다.	O	X
4	돌기 꼭대기의 물방울은 부착력이 무게를 넘어서는 순간 아래로 떨어진다.	O	X
5	'안개 찌기' 자세는 체온 손실과 포식자 노출 위험을 줄여 주는 자세이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4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0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샤프츠베리·듀이 미학

2025년 9월 고1 학력평가 16~21번

샤프츠베리는 신 중심의 위계적 미와 취미·무관심성으로, 듀이는 '하나의 경험'과 질성으로 미적 경험을 설명한다.

미의 위계 → 취미 → 무관심성 → 하나의 경험 → 질성

- (가)① 샤프츠베리: 우주의 질서·균형·조화를 지닌 대상이 아름답다, 미는 대상에 실재
 (가)② 미의 위계성: 형성력에 따라 신 > 인간 > 물질적 대상 순으로 아름다움
 (가)③ 취미: 신이 준 본능, 즉각적 미 판단, 사회 영향에 왜곡되어 교육 필요
 (가)④ 무관심성: 사적 욕망에서 벗어나 대상의 내재적 가치에 주목해야 함
 (나)① 듀이: 인간은 환경과 상호 적응하며 경험을 생성하는 유기체
 (나)② '하나의 경험'은 질성으로 묶인 단일체, 질성은 주체마다 다를 수 있음
 (나)③ 창작자는 감상자의 관점을 지니고 감상자가 얻을 경험에 주목해야 함
 (나)④ 감상자도 자기 경험을 창조해야 하므로 작품의 의미·가치는 고정되지 않음

- 1 X 샤프츠베리는 인간보다 물질적 대상인 예술품이 더 아름답다고 보았다.
 → '물질적 대상보다는 인간이, 인간보다는 신이 더 아름답다'.
 2 O 샤프츠베리에 따르면 취미는 본능이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 없지만, 제대로 발현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는 없지만' '교육이나 계발이 필요하다'.
 3 X 샤프츠베리의 무관심성은 대상에 대해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뜻한다.
 →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4 O 듀이에 따르면 질성은 경험 주체와 대상의 상호 작용 결과이므로 같은 경험이라도 주체마다 다를 수 있다.
 → 질성은 '상호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에' '주체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5 X 듀이는 창작자가 감상자의 경험보다 기술적 정교함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 '기술적 정교함이 아니라' '감상자가 갖게 될 경험에 더 주목해야 한다'.

지문 2 딱정벌레의 안개 수확

2026년 6월 고1 학력평가 16~19번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는 친수성·소수성이 교차하는 등판 구조와 '안개 찌기' 자세로 안개를 물로 모은다.

안개 → 친수·소수 → 접촉각 → 물방울 이동 → 안개 찌기

- ① 안개 낀 사막의 딱정벌레 등판: 돌기 꼭대기는 친수성, 옆면·바닥은 소수성
 ② 접촉각은 응집력·부착력으로 결정,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접촉각이 작음
 ③ 친수성 꼭대기에서 물방울이 커져 떨어지고, 소수성 면에서 구형으로 흘러내림
 ④ 몸을 약 23°로 드는 '안개 찌기' 자세로 위험을 감수하며 수분 획득

- 1 X 딱정벌레 등판 돌기의 꼭대기 부분은 물을 배척하는 소수성을 띤다.
 → 꼭대기는 '친수성'이고, 돌기 옆면과 바닥면이 소수성이다.
 2 O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접촉각은 작아진다.
 →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접촉각은 작아진다'.
 3 O 접촉각이 90° 이상이면 응집력이 우세해 액체가 구형에 가깝게 맺히는 소수성을 띤다.
 → '응집력이 우세해져 액체가 구형에 가깝게 맺히며, 접촉각은 90° 이상이 되어 소수성'.
 4 X 돌기 꼭대기의 물방울은 부착력이 무게를 넘어서는 순간 아래로 떨어진다.
 → '물방울의 무게가 부착력을 넘어서는 임계점'에서 중력에 의해 떨어진다.
 5 X '안개 찌기' 자세는 체온 손실과 포식자 노출 위험을 줄여 주는 자세이다.
 → 이 자세는 '체온을 빨리 손실되게 하고 포식자에게 노출될 위험을 높이지만' 물을 얻게 한다.

DAY 11

지문 1 / 2

사회·경제

2025년 10월 고1 학력평가 11~16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준거가격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외부준거가격과 내부준거가격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준거가격은 제품의 정가나 할인된 가격 등과 같이 소비자의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격으로,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등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시된다. 내부준거가격은 소비자가 과거 경험이나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어 형성된다.

그렇다면 내부준거가격에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반영될까?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형태나 기능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 소비자는 이 차별화된 가치에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을 부여하며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내부준거가격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돼지고기와 비교해 소고기의 맛이나 영양소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면 양의 차별화 가치를 부여해 소고기의 내부준거가격을 높이고, 반대로 육질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음의 차별화 가치를 적용해 내부준거가격을 낮춘다.

이러한 내부준거가격의 형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나 제품의 특성,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아진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내부준거가격을 형성한다. 반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으면 소비자는 제품의 차별화 가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탐색하거나 대안을 생각하는 절차 등을 생략하고 이전에 형성했던 내부준거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이때 과거에 구매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고가의 제품이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해 품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소비자는 더 이상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기존의 내부준거가격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행동경제학에서

는 이러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거래효용으로 설명한다. 이때 거래효용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제품의 가격인 내부준거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거래효용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다고 본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실질적인 필요 여부보다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이득이나 손실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효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희소성이나 외부준거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이다. 먼저 희소성 제시 전략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한정된 시간이나 수량 등과 같은 제한된 공급 상황을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는 제품을 당장 구매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특히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담긴 제한된 공급 상황을 신뢰할 경우,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내부준거가격이 높아져 거래효용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외부준거가격 제시 전략은 기업이 할인된 제품의 가격을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외부준거가격과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다. 이는 소비자의 거래효용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때 기업이 제시하는 외부준거가격에는 경쟁 기업의 판매가격인 경쟁 준거와 자사에서 과거에 제품을 판매했던 가격인 과거 준거가 있다. 만약 소비자가 기업에서 제시한 경쟁 준거나 과거 준거를 기준으로 자신의 내부준거가격을 형성한다면 제품의 할인된 가격에 대해 거래효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기업은 거래효용이 음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래비효용도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다. 소비자가 외부준거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는 느낌을 받는다면 거래효용은 음의 가치를 가진다.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의 내부준거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 거래비효용을 방지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의 수요가 아무리 높아도 기업은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입장권의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가격을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가격 인상의 이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여 거래비효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

DAY 11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이 글은 6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내부준거가격은 광고나 가격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외부 환경에서 제시되는 가격이다.	O	X
2	관여도가 낮은 제품을 살 때 소비자는 이전에 형성했던 내부준거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O	X
3	고가의 제품은 반복 사용해 품질에 확신이 생겨도 소비자가 계속 정보를 탐색한다.	O	X
4	거래효용은 내부준거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O	X
5	기업은 소비자와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할 때,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을 내부준거가격보다 크게 높인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6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1

지문 2 / 2

과학·생명

2026년 9월 고1 학력평가 20~23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신경전달물질은 인간의 뇌 곳곳으로 이동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도파민은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을 유발하는 등 행동 조절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도파민이 복측 피개 영역에서 측좌핵, 전전두엽피질로 연결되는 보상 회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보상 회로의 신경 세포 활성화가 조절된다. 복측 피개 영역에서 분비된 도파민은 측좌핵으로 전달되는데, 측좌핵이 활성화되면 보상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활성화가 억제되면 동기 부여가 사라진다. 이후 도파민은 전전두엽피질로 전달되어 적절한 행동 반응을 하게 한다.

보상 회로의 측좌핵은 기대한 보상을 얻을 때나 보상을 기대할 만한 단서를 접했을 때 활성화되며, 보상을 얻을 때보다 보상을 기다리는 동안 더 활성화된다. 또한 측좌핵의 활성화는 보상 예측 오류와도 관련이 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을 얻거나 기대 이상의 보상을 얻으면 활성화되고 보상이 기대보다 못하면 활성화가 억제된다. 반면 기대한 것과 동일한 보상은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측좌핵의 활성화 정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보상 회로를 구성하는 신경 세포 표면에 있는 도파민 수용체는 도파민에만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신경 세포에 도파민 신호

가 전달되도록 해 주며, D1수용체와 D2수용체로 나뉜다. 도파민 수용체에 도파민이 결합하여 신경 세포의 활성화가 조절되는데, 활성화 조절은 cAMP를 통해 가능하다. cAMP는 신경 세포 내부에서 신경전달물질 신호를 증폭하는 2차 전달자이다. 도파민이 결합한 D1수용체는 cAMP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D2수용체는 cAMP의 생산을 감소시키며, 이에 따라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거나 활성화가 억제된다.

특정 약물이나 행동에 의한 중독은 보상 회로의 민감화와 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상을 주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거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에서 보상 회로는 동일한 자극에 예전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는 민감화를 겪을 수 있다. 민감화가 일어나면 특정 자극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자극에 대한 반응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 특정 약물이나 행동에 대해 도파민 수용체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 수용체는 신호의 전달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수용체의 개수를 줄여 수용체의 민감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수준의 보상을 위해서 더 크고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민감화와 내성은 중독이 생기는 과정에서 각각 발생하기도 하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

DAY 11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측좌핵은 보상을 얻을 때보다 보상을 기다리는 동안 더 활성화된다.	O	X
2	기대한 것과 동일한 보상이라도 매우 긍정적인 보상이라면 측좌핵의 활성화 정도가 커진다.	O	X
3	도파민이 결합한 D2수용체는 cAMP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O	X
4	민감화가 일어나면 특정 자극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자극에 대한 반응은 줄어든다.	O	X
5	내성은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높아져 작은 자극에도 강하게 반응하게 되는 현상이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1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준거가격과 거래효용

2025년 10월 고1 학력평가 11~16번

소비자의 내부준거가격은 가치 평가와 관여도에 따라 형성되며, 기업은 이와 실제 가격의 차이인 거래효용을 마케팅에 활용한다.

준거가격 → 차별화 가치 → 관여도 → 거래효용 → 거래비효용

- (가)① 준거가격은 외부준거가격과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형성한 내부준거가격으로 나뉨
 (가)② 소비자는 차별화된 가치에 양·음의 값을 부여해 내부준거가격을 조정함
 (가)③ 관여도 높으면 많은 노력으로 형성, 낮으면 기존 내부준거가격을 유지함
 (나)① 거래효용: 내부준거가격과 실제 가격 차이, 사용 가치보다 크면 불필요해도 구매함
 (나)② 희소성 제시와 외부준거가격(경쟁·과거 준거) 제시로 거래효용 유도
 (나)③ 거래비효용을 막기 위해 가격을 내부준거가격 근처로 유지하거나 이유 설명

- 1 X 내부준거가격은 광고나 가격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외부 환경에서 제시되는 가격이다.
→ 그것은 '외부준거가격'이고, 내부준거가격은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이다.
- 2 O 관여도가 낮은 제품을 살 때 소비자는 이전에 형성했던 내부준거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 관여도가 낮으면 '이전에 형성했던 내부준거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
- 3 X 고가의 제품은 반복 사용해 품질에 확신이 생겨도 소비자가 계속 정보를 탐색한다.
→ '고가의 제품이라도' 확신이 생기면 '더 이상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
- 4 O 거래효용은 내부준거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 거래효용은 '내부준거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 5 X 기업은 소비자와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할 때,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을 내부준거가격보다 크게 높인다.
→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가격을 내부준거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지문 2 도파민과 보상 회로

2026년 9월 고1 학력평가 20~23번

도파민이 보상 회로와 수용체를 통해 신경 세포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원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중독의 두 기제(민감화·내성)를 설명한다.

보상 회로 → 측좌핵 → 수용체·cAMP → 민감화 → 내성

- ① 도파민은 복측 피개 영역→측좌핵→전전두엽피질의 보상 회로를 따라 이동하며 행동을 조절한다.
 ② 측좌핵은 보상을 기다릴 때 더 활성화되며, 보상 예측 오류에 따라 활성화가 달라진다.
 ③ 도파민 수용체 중 D1은 cAMP 생산을 늘리고 D2는 줄여 세포 활성화를 조절한다.
 ④ 중독의 민감화: 반복 자극에 보상 회로가 더 강하게 반응해 특정 자극에 집착하게 된다.
 ⑤ 중독의 내성: 수용체 민감도가 낮아져 같은 보상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진다.

- 1 O 측좌핵은 보상을 얻을 때보다 보상을 기다리는 동안 더 활성화된다.
→ '보상을 얻을 때보다 보상을 기다리는 동안 더 활성화된다.'
- 2 X 기대한 것과 동일한 보상이라도 매우 긍정적인 보상이라면 측좌핵의 활성화 정도가 커진다.
→ 기대와 동일한 보상은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측좌핵 활성화 정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 3 X 도파민이 결합한 D2수용체는 cAMP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 cAMP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D1수용체이고, D2수용체는 감소시킨다.
- 4 O 민감화가 일어나면 특정 자극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자극에 대한 반응은 줄어든다.
→ '특정 자극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자극에 대한 반응은 줄어들게 된다.'
- 5 X 내성은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높아져 작은 자극에도 강하게 반응하게 되는 현상이다.
→ 내성은 수용체가 민감도를 '낮춰' 같은 보상에 더 크고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DAY 12 지문 1 / 2

인문·철학

2025년 10월 고1 학력평가 17~20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는 철학자 사르트르의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을 잘 보여 준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의식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항상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향성을 지닌다. 그래서 인간은 현실의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현실의 대상, 나아가 현재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사르트르는 인간이 어떻게 의식을 통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그는 그 해답을 ‘무화’와 ‘상상’이라는 의식의 작용에서 찾는다. 먼저, 무화란 의식이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여는 활동을 뜻한다. 인간은 이러한 무화를 통해 현실에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자신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지향할 대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떠올리는 것이 ‘상상’이다. 상상은 단순한 환상과 달리, 현실을 무화함으로써 새로운 비실재적 대상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의식의 활동이다. 가령, 눈앞의 ‘사과’를 보고 그것의 ‘빨간색’이나 ‘둥근 모양’을 지각한다고 하자. 우리의 의식은 사과의 보이는 모습 그 자체나 사과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무화함으로써 사과의 내부가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탐욕’, ‘유혹’과 같은 새로운 상(像)을 떠올리는 상상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사과를 관찰하고 있는 나’를 무화하고 ‘사과를 좋아하는 나’를 상상함으로써 현재의 자신도 초월할 수 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무화와 상상이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예술가들은 무화와 상상을 통해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그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예를 들어,

화가가 눈앞에 있는 사과를 보고, 새롭게 상상한 색과 형태로 그것을 그렸다고 하자. 이 그림은 현실의 사과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의식이 새롭게 지향하는 대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예술가의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은 구체적인 물질적 기반을 통해 비실재적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물질적 기반을 ‘아날로공’이라고 명명하였다. 아날로공은 그림의 캔버스나 물감, 음악의 선율처럼 상상한 결과를 지각 가능한 형태로 드러내는 유사 표상물로, 상상이 현실의 제약을 넘어 가능성의 세계를 펼치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즉, 아날로공은 비실재적 대상을 감각적 경험 속에서 현전하게 만드는 상상의 외적 지지대라 할 수 있다.

예술 감상 역시 예외는 아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성을 초월한 대상을 상상하게 된다. 그는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의 결과로 탄생하는 그 대상이 바로 미학적 대상이라고 보았다. 사르트르는 감상이 의식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 자신을 초월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감상자를 작품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자’로 보았으며, 예술 작품은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르트르의 예술 철학에서 창작과 감상은 모두 인간 의식의 무화와 상상을 바탕으로 한 실존적 활동이다. 예술가는 현실을 무화하고 상상을 통해 그것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고, 감상자는 작품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며 자유로운 상상의 주체가 된다. 결국 사르트르에게 ‘예술은 자유로운 인간이 세계에 던지는 물음이자 응답’인 것이다.

DAY 12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사르트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 O | X |
| 2 | 무화는 현실의 대상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부정하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여는 활동이다. | O | X |
| 3 | 사르트르에게 상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단순한 환상으로서 수동적인 의식 작용이다. | O | X |
| 4 | 아날로공은 캔버스나 물감처럼 상상한 결과를 지각 가능한 형태로 드러내는 물질적 기반이다. | O | X |
| 5 | 사르트르는 감상자를 작품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보았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2

지문 2 / 2

예술

2026년 3월 고1 학력평가 15~17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그래피티란 공공장소에 낙서처럼 그려진 글자나 그림을 말한다. 그래피티는 도시 소외 계층들이 건물 벽이나 지하철 등의 장소에 허가받지 않은 채 재빠르게 낙서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저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에 유행했던 그래피티는 주로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태그’로 시작되었다. 태그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태그를 돋보이게 하고자 기존에 있던 태그 위에 덧대어 더 크게 태그를 그리기도 하고, 태그 자체를 복잡한 형태와 화려한 색채를 지닌 그림처럼 변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글자는 읽는 대상에서 보는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글자가 지닌 조형적 요소가 강조되며 그래피티는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태그가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게 그려지다 보니 대중들은 태그가 어떤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려워했다. 그래피티를 그리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저항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예술이 개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 비평가들은 단순히 이름이나 별명을 적는 행위에 불과했던 그래피티를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이에 그래피티는 ‘비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텅 비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1980년대의 그래피티 예술가들은 작품에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으로 대상의

형상을 오려 낸 부분에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스텐실 기법이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정교한 형상을 갖춘 글자와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술성을 높이면서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작업할 장소를 염두에 두고 표현할 글자나 그림의 형상을 미리 준비하여 현장에서의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일부 그래피티 예술가들은 그래피티가 그려지는 장소 자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목소리를 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분쟁 지역에 평화의 메시지를, 낡은 건물의 벽면에 열악한 도시 환경에 대한 풍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렇게 장소 자체가 작품의 의미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장소 특정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그래피티는 그려진 장소에서 떼어 내는 순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사라지거나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저항 정신에 기반한 낙서 행위에 불과했던 그래피티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그래피티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조명하는 공공 예술 장르로 인정받게 되었다.

DAY 12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그래피티는 허가받지 않은 낙서로 기존 질서에 저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O	X
2	태그가 복잡하고 화려해지면서 글자는 보는 대상에서 읽는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O	X
3	비평가들은 태그 그래피티가 개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아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O	X
4	스텐실 기법은 형상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어 현장에서의 작업 속도를 높여 주었다.	O	X
5	장소 특정성을 지닌 그래피티는 다른 장소로 옮겨도 작품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2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사르트르의 무화와 상상

2025년 10월 고1 학력평가 17~20번

사르트르는 인간 의식의 무화와 상상을 통해 현실과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 적용하였다.

실존 → 무화 → 상상 → 아날로공 → 감상자

- 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인간은 의식의 지향성으로 현실과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다.
- ② 초월의 방법은 무화(현실을 부정·거리 두기)와 상상(있지 않은 것을 떠올림)이다.
- ③ 예술가는 무화와 상상으로 새 세계를 창조하며, 그 물질적 기반이 아날로공이다.
- ④ 감상자도 무화와 상상으로 미학적 대상을 창조하며, 작품은 감상으로 완성된다.
- ⑤ 창작과 감상은 모두 자유를 실현하는 실존적 활동이다.

- 1 **X** 사르트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을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 정해진 본질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의식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는 존재라고 여겼다.
- 2 **O** 무화는 현실의 대상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부정하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여는 활동이다.
→ 무화의 정의: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여는 활동'.
- 3 **X** 사르트르에게 상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단순한 환상으로서 수동적인 의식 작용이다.
→ 상상은 '단순한 환상과 달리' 새로운 비실재적 대상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의식 활동이다.
- 4 **O** 아날로공은 캔버스나 물감처럼 상상한 결과를 지각 가능한 형태로 드러내는 물질적 기반이다.
→ '상상한 결과를 지각 가능한 형태로 드러내는 유사 표상물'로 상상의 외적 지지대이다.
- 5 **X** 사르트르는 감상자를 작품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보았다.
→ 감상자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자'로 보았다.

지문 2 그래피티의 변화

2026년 3월 고1 학력평가 15~17번

저항적 낙서에서 출발한 그래피티가 스텐실 기법과 장소 특정성 등을 활용해 메시지를 담아내며 공공 예술로 인정받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저항 낙서 → 태그 → 스텐실 → 장소 특정성 → 공공 예술

- ① 그래피티는 소외 계층이 허가 없이 낙서하며 기존 질서에 저항한 데서 비롯되었다.
- ② 1970년대 태그는 조형성으로 주목받았지만 알아보기 어렵고 내용이 비었다고 비판받았다.
- ③ 1980년대 스텐실 기법으로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고 작업 속도도 높였다.
- ④ 장소 특성을 활용한 장소 특정성 그래피티는 장소에서 떼면 의미가 퇴색된다.
- ⑤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형상화하며 공공 예술 장르로 인정받게 되었다.

- 1 **O** 그래피티는 허가받지 않은 낙서로 기존 질서에 저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 '허가받지 않은 채 재빠르게 낙서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저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 2 **X** 태그가 복잡하고 화려해지면서 글자는 보는 대상에서 읽는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 방향이 반대: 글자는 '읽는 대상에서 보는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 3 **X** 비평가들은 태그 그래피티가 개인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담아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 비평가들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 행위라며 비판했고 '탕 비었다'고 평가했다.
- 4 **O** 스텐실 기법은 형상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어 현장에서의 작업 속도를 높여 주었다.
→ '형상을 미리 준비하여 현장에서의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다.'
- 5 **X** 장소 특정성을 지닌 그래피티는 다른 장소로 옮겨도 작품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
→ '그려진 장소에서 떼어 내는 순간' 의미가 사라지거나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DAY 13

지문 1 / 2

사회·정치

2026년 6월 고1 학력평가 11~15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과정의 전반을 관리하는 선거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부형과 독립형으로 분류한다.

먼저 정부형은 행정부에 소속된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형태이다. 선거관리기관의 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해당 부처 담당자가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예산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포함된다. 반면 독립형은 선거관리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예산의 편성 및 운용이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기관의 위원들은 행정부 소속이 아닌 인사로 구성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임기가 보장된다.

우리나라는 선거공보의 접수·심사·발송과 투·개표소 운영을 포함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이것은 권력 기관의 상호 견제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공직선거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 선거 등을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관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추천인, 법관, 교육자 등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공정성과 중립성의 의무를 지니므로 임기 6년 동안은 정당 가입과 정치 관여가 금지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법관 출신이 호선*되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선거관리 전반에서 법률 해석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모든 위원은 선거와 관련된 이익제기 및 각종 사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는데, 만약 그 결과가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 호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

* 가부동수: 찬성하는 수와 반대하는 수가 동일한 상태.

(나)

선거공보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상황, 채납실적과 병역사항,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공약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후보자나 정당이 작성한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선거공보는 책자형으로, 법정 기한 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의 방식을 선택해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에 법정 규격과 면수 등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주로 심사한다. 하지만 공약의 현실성은 검열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거짓 사실이 게재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수사기관 등에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와 관련된 증명 서류를 후보자 본인과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후보자 본인이나 이의 제기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관련 내용이 거짓 사실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투표소 등에 공고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나 그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고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6항에 따르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한다. 이를 게재하지 않거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에 게재하면 해당 선거공보는 접수가 거부된다. 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고지를 거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후보자와 무관한 독립적인 생계에 의해 형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지거부'로 기재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나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사유로 병역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사항 및 그 사유를 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계비속 중 혼인한 여성 등의 재산상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직계존·비속: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부모)과 비속(자녀).

* 적시: 지적하여 보임.

DAY 13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이 글은 7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정부형에서는 선거관리기관의 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해당 부처 담당자가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O | X |
| 2 | 선거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 | O | X |
| 3 |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법관 출신이 호선되는 관행은 법률 해석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O | X |
| 4 |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심사할 때 공약의 현실성까지 검열한다. | O | X |
| 5 |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둘째 면에 다 들어가지 않아 셋째 면에 이어 게재한 선거공보도 접수가 거부된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7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3 지문 2 / 2

인문·철학

2026년 6월 고1 학력평가 20~23번

1 천천히 읽기

시작

끝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철학자들은 철학이 시작된 이래로 생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해 왔다. 그중에서도 인간이 언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철학자 나름의 의견을 언급해 왔다. 이를 정리하면 여러 상황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하이데거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 생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이데거는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은 채 어떤 것과 관계한다는 의미로 ‘손안에 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손안에 있음’은 문이 평소와 다름없이 잘 열릴 때, 손잡이와 문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상황과 같다. 이와 반대로 ‘손안에 있지 않음’은 잘 열리던 문이 열리지 않아 손잡이와 문을 의식하게 되는 상황과 같다. 이는 자기 행동에 대해 자기 모습을 의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손안에 있지 않음’의 상황, 즉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 인간이 생각한다고 보았다.

들뢰즈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는 하이데거처럼, 생각은 기본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과의 만남에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들뢰즈는 생각이 사건과의 우연한 마주침에서부터 비자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여기서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낮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생각이 일어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늘 무표정으로 일찍 집에 오던 동생이 매우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고 하자. 평소와 다르게 동생은 미소를 짓고, 상기된 얼굴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왔다. 이때 동생의 미소, 상기된 얼굴, 흥얼거리는 노래에 관해 해석하게 된다. 이때 생각을 하게 되고

해석의 결과로 동생의 낮은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자기 배려로서, 낮은 불편함을 친숙함과 편안함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 해당한다.

또한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에는 ‘무의미’를 들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건이 붙으면서도 동시에 붙지 않다.’라는 모순된 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들뢰즈는 무의미가 단순히 의미가 결여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모순된 두 의미를 포함해 그 사이에 더 많은 의미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사랑이면서도 사랑이 아니다.’라는 모순의 상황은 단순히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의 사이에 매우 많은 생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의미는 우리에게 의미를 채우게 하여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어떤 존재를 단독적이고 교환 불가능한 존재라고 인식할 때 생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절대자의 명령 앞에 깊이 생각하는 아버지를 예로 들어, 고뇌와 불안의 가치를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자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한다. 교환 가능한 존재와 교환 불가능한 존재가 그것이다. 전자는 아들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보고, 후자는 아들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아들을 교환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로 여긴 아버지가 딜레마를 끌어안고 깊이 고뇌한 것은 진정한 사유 행위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DAY 13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하이데거의 '손안에 있음'은 대상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채 그것과 관계하는 상태를 뜻한다.	☐	☐
2	하이데거는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였다.	☐	☐
3	들뢰즈는 생각이 사건과의 우연한 마주침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	☐
4	들뢰즈는 모순된 표현과 같은 무의미가 오히려 많은 생각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	☐
5	키에르케고르의 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깊이 고뇌하였다.	☐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3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선거관리기관과 선거공보

2026년 6월 고1 학력평가 11~15번

(가)는 선거관리기관의 유형과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구성을, (나)는 선거공보의 접수·심사와 거짓 사실 및 게재 방식에 관한 규정을 설명한다.

정부형·독립형 → 선관위 → 위원 구성 → 선거공보 → 거짓 신고 → 둘째 면

- (가)① 선거관리기관은 행정부 소속 여부에 따라 정부형과 독립형으로 나뉜다.
 (가)② 정부형은 행정부 부처가 담당하고, 독립형은 예산·인사가 독립되어 중립성을 확보한다.
 (가)③ 우리 선관위는 독립 헌법기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직선거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가)④ 위원은 6년간 정치 관여가 금지되고, 법관 출신 위원장이 가부동수 시 결정한다.
 (나)① 선거공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며, 선관위는 형식 요건을 주로 심사한다.
 (나)② 후보자정보에 거짓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고, 선관위는 공고·고발 등을 한다.
 (나)③ 후보자정보는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하며, 일부 정보는 제한적으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 1 O 정부형에서는 선거관리기관의 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해당 부처 담당자가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해당 부처 담당자가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2 X 선거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편성한 예산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된다.
 → '국회가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며, 이는 권력 기관의 상호 견제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3 O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법관 출신이 호선되는 관행은 법률 해석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선거관리 전반에서 법률 해석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4 X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심사할 때 공약의 현실성까지 검열한다.
 →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주로 심사하며 '공약의 현실성은 검열하지 않는다.'
 5 X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둘째 면에 다 들어가지 않아 셋째 면에 이어 게재한 선거공보도 접수가 거부된다.
 → '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문 2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

2026년 6월 고1 학력평가 20~23번

철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건, 무의미, 교환 불가능한 존재에 대한 인식 등 인간에게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을 살펴본다.

손안에 있지 않음 → 마주침 → 해석 → 무의미 → 교환 불가능

- ① 철학자들은 인간이 언제 생각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 왔다.
 ② 하이데거: '손안에 있지 않음', 즉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 생각한다.
 ③ 들뢰즈: 사건과의 우연한 마주침이 비자발적으로 생각을 강제하고 해석하게 한다.
 ④ 들뢰즈는 무의미가 의미 결여가 아니라 의미를 채우게 하여 생각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⑤ 키에르케고르: 타자를 교환 불가능한 존재로 인식할 때 깊은 사유가 일어난다.
- 1 O 하이데거의 '손안에 있음'은 대상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채 그것과 관계하는 상태를 뜻한다.
 →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은 채 어떤 것과 관계한다는 의미로 손안에 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
 2 X 하이데거는 인간이 생각한다든 것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였다.
 → '인간이 생각한다든 것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3 X 들뢰즈는 생각이 사건과의 우연한 마주침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 마주침에서 '비자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낮은 상황이 생각을 강제한다.
 4 O 들뢰즈는 모순된 표현과 같은 무의미가 오히려 많은 생각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 무의미는 '단순히 의미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게 하여 생각하도록 한다'.
 5 X 키에르케고르의 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깊이 고뇌하였다.
 → 아들을 '교환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로 여겼기에 딜레마 속에서 고뇌했다.

DAY 14

지문 1 / 2

사회·경제

2026년 9월 고1 학력평가 11~16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가)

한 나라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하나뿐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무척 비싼 가격에 아이스크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나라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파는 기업이 여러 개 있다면 기업 간 가격 및 기술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즐기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 간 경쟁은 전체 국민의 행복의 크기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을 마련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은 초기 자본주의에서 나타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초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공권력이 국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자유방임의 결과는 독점 자본의 급격한 성장으로 나타났다. 독점 자본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과다한 이윤을 추구하였으며, 이로 인한 폐해는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독점 자본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시장 경제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독점규제법이 마련된 것이다. 즉, 독점규제법은 자유 경쟁의 정신을 회생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은 중소기업과 같은 약소 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점규제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법으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되는 것 중 하나는 기업 결합이다. 기업 결합은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면 기업은 비용 절감과 같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경쟁 사업자를 없애는 것과 같은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여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 결합을 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 제한 효과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기업 결합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 분야에서 제1위가 된다면 이는 해당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기업 결합의 제한을 통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점규제법을 통해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는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발판이 된다.

(나)

특허와 같은 지식 재산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한 유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허권을 인정받은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특허권을 행사하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거나, 해당 특허가 필수 생산 요소와 같은 유력한 기술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서는 특허권의 행사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특허권을 행사하는 자의 행위는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을까?

공정거래법에서는 특허권 등의 지식 재산권을 행사하는 자의 행위가 지식 재산권을 남용하여 새로운 기술 혁신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부당하게'는 지식 재산권의 행사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가 있다. 특허권자가 이윤 기술적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시료 부과 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이나,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 따라 실시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는 실시 범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의 이용 범위를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를 허락하거나, 실시 허락 시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 따라 이용 범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특허권의 실시를 위해 직접 필요하지 않은 기술을 함께 구입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할 때는 부과된 조건이 해당 특허 발명의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지, 해당 조건이 관련 기술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한다.

법의 내용만 본다면 독점규제법과 지식 재산 제도는 상충하는 것처럼 보인다. 독점규제법은 경쟁을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지식 재산 제도는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은 자본이 지나치게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기술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는 가정을 근간으로 성립되었으며, 지식 재산 제도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음을 고려할 때, 둘은 모두 혁신을 장려하고자 하는 공동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DAY 14

지문 1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6

7

이 글은 7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 · 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 | | | | |
|---|--|---|---|
| 1 | 독점규제법은 중소기업과 같은 약소 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다. | O | X |
| 2 |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 결합을 하려면 사전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 O | X |
| 3 | 지식 재산권 행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쟁 제한 효과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 O | X |
| 4 | 특허권자가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 O | X |
| 5 | 독점규제법과 지식 재산 제도는 서로 상충하므로 공동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 O | X |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7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4 지문 2 / 2

인문·철학

2026년 9월 고1 학력평가 17~19번

1 천천히 읽기

문단마다 멈추고, 그 문단이 하는 말을 속으로 한 줄로

시작

끝

다 읽었으면 이 쪽을 덮고 넘기세요 →

칸트와 헤겔은 자유를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으로 보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 의미를 체계화하였다. 칸트는 감각 경험을 통해 인식되는 현상계와, 이성에 의해 사유될 수 있을 뿐 경험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예지계를 구분하여 자유를 설명하였다. 현상계의 모든 사건은 앞선 원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현상계에서 인간의 의지는 쾌를 추구하고 불쾌를 피하고자 하는 감각적 욕구 등 이성이 아닌 것이 원인이 되어 규정되고, 인간은 이러한 의지에 따라 행위한다. 예를 들어 배가 아파서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는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원인이 되어 음식 섭취 거부라는 결과에 이른 것으로, 칸트는 이러한 현상계에서의 행위를 타율적인 것으로 보았다.

칸트는 자유가 현상계가 아니라 예지계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 예지계에서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행위 법칙인 도덕 법칙을 스스로에게 부과할 수 있는 자기입법 능력을 지닌다. 인간이 특정한 상황에서 세운 주관적 행위 원리를 준칙이라고 하는데, 칸트는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칸트에 따르면 보편성이란 어떤 준칙을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했을 때 모순 없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며, 보편성이 확보된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 그는 이러한 도덕 법칙에 따라, 이성이 원인이 되어 의지를 규정하고 행위를 실천할 때 비로소 자유를 의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굶주린 아이를 위해 '타인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이를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도덕 법칙에 따라 배고픔을 참고 음식을 양보하는 경

우, 이성이 원인이 되어 행위에 이른 것으로 이때 인간은 자유를 의식하게 된다.

한편 헤겔은 개인의 의지가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서 구현될 때 자유가 실현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자유를 '구체적 자유'라고 하였다. 헤겔에 따르면 자유는 가족, 시민 사회, 국가라는 관계망 속에서 점점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현된다. 헤겔은 먼저 가족 단계에서는 사랑이라는 정서에 기초하여 관계 속에서 자유가 실현되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보장이 약하다고 보았다. 시민 사회 단계에서는 개인이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각종 제도가 수립되어 자유의 실현이 보다 구체화되지만,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여 불안정하다고 보았다. 국가 단계에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로 인해 법적 보호 및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해져 자유의 실현이 가장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헤겔에 따르면 이러한 법과 제도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적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완성된 형태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다.

헤겔은 자유가 종종 개인의 선택 가능성으로만 잘못 이해된다고 보고, 이러한 자유를 '추상적 자유'라고 비판하였다. 추상적 자유는 법이나 제도를 구속으로 간주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헤겔은 추상적 자유가 제도적 맥락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공동체의 질서와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파괴적 성향을 띌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헤겔은 자유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자유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DAY 14

지문 2 · 덮고 꺼내기

앞 쪽을 다시 펴 보지 않습니다

2 덮고 말하기

3분 ·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 막힘없이 끝까지 설명했다 ☐ 막힌 곳이 있다

3 뼈대 쓰기

3분 · 문단 순서대로 한 줄씩

1

2

3

4

5

이 글은 5개의 의미 단락으로 정리됩니다. 줄 수만큼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4 덮은 채로 O·X

2분 · 기억으로만 판단하고 동그라미

1	칸트는 감각적 욕구가 원인이 되어 의지가 규정되는 현상계의 행위를 타율적인 것으로 보았다.	O	X
2	칸트에 따르면 주관적 행위 원리인 준칙은 보편성을 갖추지 않아도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O	X
3	헤겔은 가족 단계에서 자유의 실현이 가장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O	X
4	헤겔은 국가의 법과 제도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적 강제가 아니라 완성된 자유의 조건으로 보았다.	O	X
5	헤겔은 개인의 선택 가능성으로서의 자유를 자유의 완성된 형태로 보았다.	O	X

5 펴서 대조 · 자가 채점

답지는 이 날의 마지막 쪽

뼈대 / 5	OX / 5	다시 펴서 처음 본 것 같은 문단
-----------	-----------	--------------------

☐ 3일 뒤 다시 꺼냈다 (/) ☐ 7일 뒤 다시 꺼냈다 (/)

DAY 14 답지

주제 · 흐름 · 문단 뼈대 · OX 근거

지문 1 독점규제법과 특허권

2026년 9월 고1 학력평가 11~16번

(가)는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의 취지와 기업 결합 규제를, (나)는 특허권 행사에 독점규제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두 제도의 공동 목적을 설명한다.

경쟁 → 독점규제법 → 기업 결합 → 특허권 → 부당 남용 → 혁신

- (가)① 기업 간 경쟁은 국민의 행복을 키우므로 각국은 독점규제법을 마련한다.
 (가)② 독점규제법은 독점 자본의 폐해를 시정하려 생겼으나 약소 기업을 직접 보호하진 않는다.
 (가)③ 공정거래법은 기업 결합을 사전 신고·심사하게 하여 독과점을 미리 막는다.
 (가)④ 공정한 경쟁은 소비자 후생 극대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으로 이어진다.
 (나)① 특허권은 독점적 사용권이지만 그 행사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나)② 지식 재산권을 부당하게 남용하면(실시료 차별, 부당한 조건 등)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
 (나)③ 두 제도는 상충해 보이나 모두 기술 혁신을 장려한다는 공동 목적을 가진다.

- 1 X 독점규제법은 중소기업과 같은 약소 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다.
 → '약소 기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들과 성격이 다르다.
- 2 O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 결합을 하려면 사전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 '사전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3 O 지식 재산권 행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경쟁 제한 효과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부당하게'는 ... 경쟁 제한 효과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X 특허권자가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 실시료 부과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거래 상대방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부과할 때만 벗어난다.
- 5 X 독점규제법과 지식 재산 제도는 서로 상충하므로 공동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혁신을 장려하고자 하는 공동 목적'을 가진다.

지문 2 칸트와 헤겔의 자유

2026년 9월 고1 학력평가 17~19번

칸트는 이성이 의지를 규정해 도덕 법칙에 따를 때 자유를 의식한다고 보았고, 헤겔은 개인의 의지가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서 구현되는 구체적 자유를 강조했다.

현상계 → 예지계 → 도덕 법칙 → 구체적 자유 → 추상적 자유

- ① 칸트는 현상계와 예지계를 구분하고, 감각적 욕구에 따른 현상계의 행위를 타율로 보았다.
 ② 칸트: 자유는 예지계에 속하며, 보편성 있는 준칙(도덕 법칙)에 따를 때 의식된다.
 ③ 헤겔: 개인의 의지가 사회적 관계와 제도 속에서 구현될 때 구체적 자유가 실현된다.
 ④ 자유는 가족→시민 사회→국가 단계로 갈수록 구체화되며, 국가에서 가장 완성된다.
 ⑤ 헤겔은 제도를 구속으로 보는 추상적 자유를 비판하고 구체적 자유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 1 O 칸트는 감각적 욕구가 원인이 되어 의지가 규정되는 현상계의 행위를 타율적인 것으로 보았다.
 → 현상계에서 의지는 감각적 욕구 등에 의해 규정되며, 칸트는 이를 '타율적인 것으로 보았다.'
- 2 X 칸트에 따르면 주관적 행위 원리인 준칙은 보편성을 갖추지 않아도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되려면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 3 X 헤겔은 가족 단계에서 자유의 실현이 가장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 가족 단계는 제도적 보장이 약하고, '국가 단계'에서 자유의 실현이 가장 구체화된다.
- 4 O 헤겔은 국가의 법과 제도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적 강제가 아니라 완성된 자유의 조건으로 보았다.
 → 법과 제도는 '외적 강제가 아니라' 완성된 형태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다.
- 5 X 헤겔은 개인의 선택 가능성으로서의 자유를 자유의 완성된 형태로 보았다.
 → 선택 가능성으로만 이해된 자유를 '추상적 자유'라 비판하고 구체적 자유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